

#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문양 소재 연구

윤종균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I. 머리말

## II. 정촌고분 금동신발 문양 분석

1. 금동신발 개요
2. 용머리 장식
3. 측판 문양
4. 바닥 문양

## III.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원리

1. 원류와 원형
2. 문양 전개 과정

## IV. 맺음말

#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문양 소재 연구

윤종균

## I. 머리말

삼국시대 고분에서 나온 금동관과 금동신발은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적 위상을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 유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백제 영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모두 22점의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는데,<sup>1</sup> 주로 4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금동신발에 대한 연구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지역 지배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2014년 확인된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sup>3</sup>은 2009년 발굴 조사된 고창 봉덕

- 1 성윤길,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문양에 대한 고찰」,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보물지정 기념도록) 신선되어 하늘 나라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1).
- 2 이남석, 「백제의 관모, 관식과 지방통치체제」, 『한국사학보』33(2008).  
이한상,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서울: 학연문화사, 2009).  
진소영, 「금동신발과 백제의 지방통치」, 『계명사학』20(2009).  
이훈, 「금동관을 통해본 4~5세기 백제의 지방통치」(공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노중국, 「百濟의 冠 裝飾의 象徴性」, 『百濟의 冠』(국립공주박물관, 2011).  
이한상, 「百濟의 金屬製 冠文化」, 『百濟의 冠』(국립공주박물관, 2011).  
강원표, 「百濟 金銅冠의 製作과 賜與에 대한 考察」, 『百濟의 冠』(국립공주박물관, 2011).  
이귀영, 「百濟 冠 象徴體系의 變遷樣相」, 『百濟文化』46(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노중국,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한국고대사연구』70(2013).
- 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羅州 伏岩里 丁村古墳』(201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 도록)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 마한 사람들 큰 무덤에 함께 잠들다』(201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보물지정 기념도록) 신선되어 하늘 나라샤』(2021).



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sup>4</sup>과 함께 현존하는 금동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출토되었으며, 다양한 문양 구성으로 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2점 모두 뛰어난 제작 기술과 다양한 문양 구성품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4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2021년 실감콘텐츠 사업의 하나로 금동신발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에 보이는 문양 소재의 의미를 백제 지역 금동관과 금동신발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문양 등을 비교 검토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sup>5</sup>가 있지만, 세부적 문양 해석에서 필자 나름의 의견이 있어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문양의 순차적 구성과 성격 등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 II. 정촌고분 금동신발 문양 분석

### 1. 금동신발 개요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나주 신촌리 9호분과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에 이어 3번째로 확인된 금동신발이다(도 1).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재료는 100% 구리이고 아말감기법을 이용하여 금도금을 하였다. 금동신발의 길이는 왼쪽 31.09cm와 오른쪽 31.83cm이며, 너비는 9.2cm와 9.35cm, 두께는 0.5~1.3mm이다. 구리판은 신발 틀에 맞추어 자른 후 문양을 오려내는 투각<sup>透刻</sup>과 문양의 안쪽에 삼각형의 날카로운 정으로 무늬를 넣는 축조<sup>蹴彫</sup> 기법을 활용하였다.

4 마한·백제문화연구소·고창군, 『高敞 鳳德里 1號墳 종합보고서』(2016).

5 이문형·유수화, 「고창 봉덕리1호분 출토 금동신발의 제작방법과 문양-4호석실 출토품을 중심으로-」, 『馬韓·百濟文化』25(2015).

이문형,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18.(2015).

성윤길,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분석과 의미」,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고대 동아시아의 금동신발과 금동관』(2019).

성윤길, 「고창 봉덕리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문양 특징과 의미」, 『馬韓·百濟文化』36(2020).

성윤길, 앞의 논문(2021).



도 1. 나주 다시면 복암리 정촌고분과 금동신발

바닥면에는 길이 1.1cm, 너비 0.5cm의 단면 사각형 스파이크가 24개 부착되어 있다. 신발은 좌우 측판과 바닥판으로 구성되었는데, 좌우 측판은 앞쪽의 경우 우측판이 위로, 뒤쪽은 좌측판이 위로 하여 3개의 리벳으로 고정되어 있고, 바닥판은 별도의 고정 장치가 없이 좌우 측판 하단 끝을 4mm 정도 구부려 바닥판 가장자리가 걸리도록 하였다.

발목 덮개는 1개의 구리판을 구부려 좌우측에 각각 3개의 리벳으로 고정하였으며, 측판 하단에는 신발 안쪽 직물과 연결하기 위한 직경 0.1cm 내외의 구멍이 0.2~0.6cm 간격 뚫려 있다.<sup>6</sup>

## 2. 용머리 장식

좌우 측판이 결합되는 신발의 발등 중앙에는 긴 띠를 3개의 리벳으로 고정한 장식이 있다. 왼쪽 신발에는 장식띠의 끝에 용머리가 남아 있고, 오른쪽은 결실된 상태이다. 띠 부분에는 3줄의 점무늬가 있으며, 용 목의 등 부분에도 1줄의 줄무늬가 있다. 이러한 줄무늬는 뱀의 몸을 형상화한 용 비늘의 흔적으로 추정한다.

용머리 장식은 공주 수촌리 1호분 출토 관모의 용 문양,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용봉문환두대도의 용 문양, 무용총 고분벽화의 청룡 등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도 2).<sup>7</sup>

필자는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용머리 장식의 시원을 천안 용원리 1호 석곽묘 출토 용봉문환두대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용원리 출토 환두대도는 용무늬 고리 안에 주실을 문 봉황의 부리에 용의 빨과 귀를 가진 용봉이 표현되어 있다.

먼저 눈은 정촌 신발의 경우 삼각형으로 매섭게 표현되어 있으며, 용원리 환두대도는 삼각형이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6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1).

7 성윤길, 앞의 논문(2019), p.76.



도 2. 정촌고분 금동신발 용머리 장식과 환두대도

백제 금동대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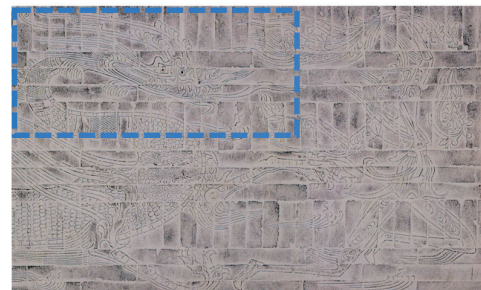


부여 외리 문양전

진파리 1호분



羽人戲龍 남제 5세기 후반 장쑤성 丹陽市 胡橋 五家村墓



오회분 5호묘

강서대묘



도 3. 정촌고분 금동신발 용머리 장식과 용의 형태 변화

사슴의 뿔을 형상화한 용의 뿔은 이마에서 시작되어, 뿔의 정상 부분이 고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으며, 새로운 뿔이 자라는 부분을 3개의 돌기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용머리 장식의 시원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공주 무령왕릉 출토 환두대도와 용원리 출토 환두대도는 뿔 돌기가 3개이지만,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돌기가 2개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자 신분의 차이인지 아니면 시기적 변화의 차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뿔은 사비기가 되면 변화되는데(도 3), 백제 금동대향로의 용 뿔은 솟아나는 부

분에 주름진 돌기가 있고, 이곳에서 3개의 새로운 뿔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부여 외리 출토 용무늬 전돌도 뿔이 ‘ㄱ’자 모양으로 꺾여 있다. 이러한 모습은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중국 장쑤성江蘇省 단양시丹陽市 호교胡橋 오가촌묘五家村墓 출토 전돌의 우인희룡羽人戲龍의 용 문양과 유사성이 있다. 즉 남조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추정된다. 특히 진파리 1호분, 오회분 5호묘, 강서대묘 등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용의 귀는 소귀를 형상화한 모습인데, 긴 관 형태로 늘어지고 귓구멍과 귓바퀴[耳輪]까지 표현되어 있다. 용의 코는 돼지 코로 들창코에 주름까지 표현되어 있으며, 윗입술은 가늘고 길게 튀어나오고 위로 들려 있다. 이러한 모습은 금동신발 바닥에 표현된 괴수의 모양과 닮았다.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용머리 장식의 입은 중앙에 혀가 있고, 상하의 송곳니가 서로 맞대어져 있다. 보다 늦은 단계인 무령왕릉 출토 환두대도의 용은 혀 부분이 생략되고 송곳니가 엇갈려 있으며, 이 부분에서 불꽃을 내뿜고 있다. 이러한 입의 모습은 6~7세기 고분벽화의 청룡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한편,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용머리 장식에서 주목되는 것은 목 부분이다. 목은 하나의 구리판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머리와 목 부분을 따로 만들어 리벳으로 고정하고, 그 위에 구리판을 덧대어 돌렸다. 이는 용의 항수項宿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수는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주요 지점으로 뿔이 생성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각수角宿, 자처럼 정확한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척목尺木 등과 함께 승천의 표시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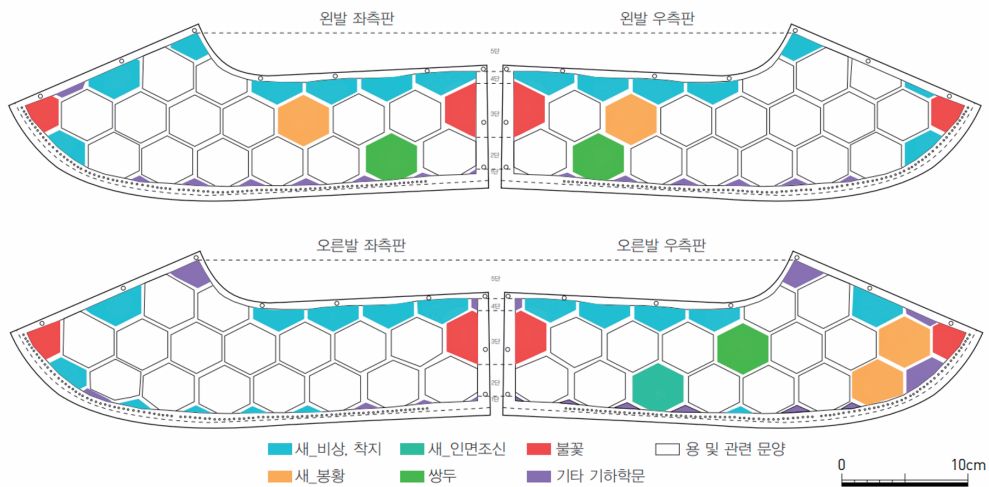
이러한 각수, 항수, 척목 등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청룡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수는 목 부분에 오색의 띠로 표현되며, 척목은 어깨 부분에 날개의 형태로 표현된다. 오색의 띠는 『관자』에 “물에서 난 용은 몸을 오색五色으로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애벌레처럼 작아질 수도 천하를 숨길만큼 커질 수도 있으며, 구름 위로 치솟을 수도, 깊은 샘에 잠길 수도 있는 신이다.”<sup>8</sup>라는 말과 관련된 것으로 역시 승천을 위한 몸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 3. 측판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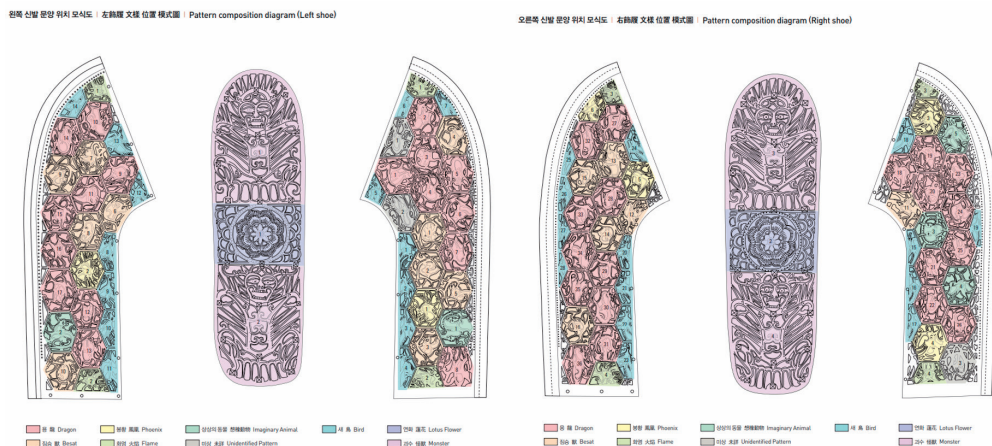
측판의 문양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보고서에 추정 모식도를 그렸는데, 보고

8 『管子』水地, “龍生於水 被五色而游 故神 欲小則化如蠶蠋 欲大則藏於天下 欲上則凌於雲氣 欲下則入於深泉 變化無日 上下無時 謂之神龜與龍 伏聞能存而能亡者也”.





도 4. 정촌고분 금동신발 측판 모식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도 5. 정촌고분 금동신발 측판 모식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1)

서에서는 이러한 문양을 승천을 위한 향연으로 추정하였다.<sup>9</sup> 필자는 이러한 추정 모식도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도 4~5).

## 1) 기본 문양

먼저 측판의 기본 문양은 육각문六角文으로 경주 식리총과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서도

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1).

기본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좌우 측판은 상하 2단의 육각문을 기본으로 하였다. 신발의 윗면은 오각문으로 직선을 이루는 신발 형태를 고려하여 육각면의 위를 자른 것으로 판단되며, 크게 보면 육각문의 범주에 든다. 육각문은 귀갑문으로도 부르며 서아시아에서 기원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동아시아에 전해진 것으로, 천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이러한 육각문은 귀갑총, 천왕지신총, 덕화리 1·2호분 등 5세기 중반~5세기 말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확인된다. 덕화리 2호분은 묘실의 천장부를 육각문으로 배치하였는데, 육각문 가장자리 끝 원문 안쪽에 ‘人’ 혹은 ‘Y’형 문양이 있다. 그런데 정촌고분 금동신발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진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서도 희미하기는 하지만 ‘人’ 혹은 ‘Y’형 문양이 살짝 확인된다.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금동신발에서는 육각문 가장자리에 영락 장식이 달리고, 두침과 족좌는 연화문으로 장식성을 더하였다.<sup>11</sup>

필자는 이러한 육각형 무늬가 연화문으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연꽃의 꽃봉오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연화화생蓮花化生의 시원 단계로 추정한다. 특히 무용총 벽화의 널방 천장에 표현된 5마리의 학은 꽃가지를 물고 있는데, 이 가지 역시 연꽃 가지로 표현 방법이 유사하다.

## 2) 화염문火焰文 또는 구름문雲氣文

화염문은 신발의 앞과 뒷축에 있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유사한 형태는 아니지만 화염문이 표현되어 있어 이른바 ‘삼각화염문’이라고 부른다(도 6).<sup>12</sup>

성윤길은 금동신발의 화염문에 대해, 고구려 고분벽화의 경우 천장부 아래쪽과 현실 세계와 하늘 세계를 구분하는 곳에 삼각화염문이 있어 이 두 세계를 구분하여 경계를 나누고 이와 아울러 하늘 세계를 위호衛護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았다. 또한 금동신발에서 화염문의 역할은 신발의 앞과 뒤에 위치하면서 좌우 측판에 표현된 용과 각종 서수瑞獸를 위호하

10 이송란, 「新羅 古墳出土 工藝品에 보이는 外來要素의 淵源 - 飾履塚 金銅飾履를 중심으로 - 」, 『美術史學研究』 203(1994).

이송란, 「백제 한성시기 금속공예의 투각 연속육각문의 수용과 전개」, 『百濟文化』47(2012).

이귀영, 「百濟 龜甲文 考察」, 『新羅史學報』18(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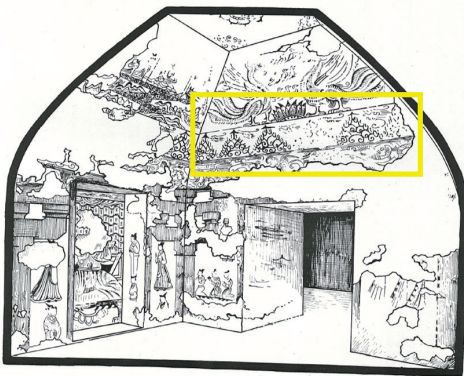
윤정아, 「공예품에 보이는 육각문의 상징적 의미 - 삼국시대 공예품을 중심으로 - 」, 『한국공예논총』16-3(2013).

성윤길, 앞의 논문(2021), pp.157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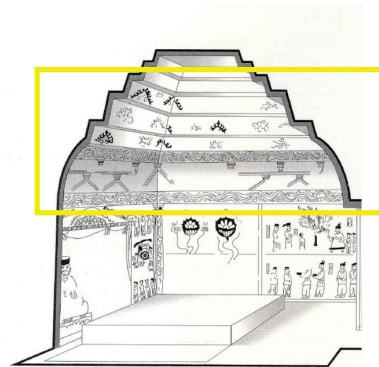
11 성윤길, 앞의 논문(2019), pp.97 - 100.

12 이송란,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上表現에 나타난 火焰文의 意味와 展開」, 『美術史學研究』 220(1998), pp.12 - 24.

감신총 벽화고분의 구름무늬



덕흥리 벽화고분의 구름무늬



도 6. 감신총 벽화고분과 덕흥리 벽화고분의 화염문 또는 운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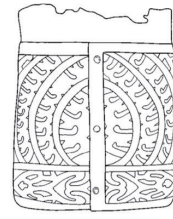
정촌고분(왼발 앞측과 뒤측)



정촌고분(오른발 앞측과 뒤측)



봉덕리고분(금동신발 앞측과 뒤측)



도 7. 정촌고분 금동신발과 봉덕리고분 금동신발 화염문 또는 운기문 비교

며 사기邪氣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계적 의미로 보았다.<sup>13</sup>

그런데 금동신발의 화염무늬의 출발점은 고분벽화처럼 아래에서 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띠는 것이 주목된다(도 7). 먼저 왼쪽 신발의 뒷측 양쪽은 하단과 양측판 연결 부위에서 시작되어 상단과 각각 좌우 방향으로 상승한다. 반면에 오른쪽 신발의 뒷측은 좌우의 연결 부위가 서로 맞지 않으며, 오른쪽은 양측의 연결 부위, 왼쪽은 하단 부위에서 시작하여 위로 시작된다. 방향 역시 왼쪽은 상단과 왼쪽 방향으로, 오른쪽은 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신발의 앞측 역시 왼쪽 신발은 뒤에서 앞 방향으로 가지만, 오른쪽 신발 앞측은 앞과 좌우 방향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화염무늬가 구름무늬일 가능성을 높여주

13 성윤길, 앞의 논문(2019), pp.98 - 100.

며, 신발 제작자의 차이에서 기인한 실수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필자는 하단의 삼각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삼각문은 육각문의 빈 공간을 채운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내부의 문양은 고분벽화에 보이는 화염무늬 또는 구름무늬로 추정되어 신발 뒷축의 무늬와 함께 지상과 천상을 구분하는 승선<sup>昇仙</sup>의 경계선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신발의 앞뒤뿐만 아니라 바닥의 삼각문도 화염무늬와 기본적 형태가 같아 이러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화염무늬는 공주 수촌리 Ⅱ-1호묘 출토 금동관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수촌리 금동관은 중앙의 오룡을 중심으로 하단에 산악무늬가 있으며, 좌우 그리고 위에 구름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승선을 위한 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무늬는 화염보다는 구름무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늬는 일본 에타후나야마<sup>[江田船山]</sup>고분 출토 금동관과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 그리고 고창 봉덕리고분 출토 금동신발에서도 보인다.

성윤길은 봉덕리 신발 좌우 측판에 있는 기 표현이 상단과 하단으로 구별된 이유를 하늘로 올라가는 맑고 가벼운 기와 땅으로 가는 무겁고 탁한 기를 상 하단으로 구분한 것으로 추정되며,<sup>14</sup>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기하학적 문양의 기氣 표현으로 보았다. 아울러 발 등쪽 두 개의 문양도 마찬가지로 보았다.<sup>15</sup> 필자 역시 정촌 금동신발에 보이는 화염무늬는 문양 구성이 승선인 점을 고려하여 기와 관련된 구름무늬 즉 운기문<sup>雲氣文</sup>으로 보고자 한다.

### 3) 조문<sup>鳥文</sup>(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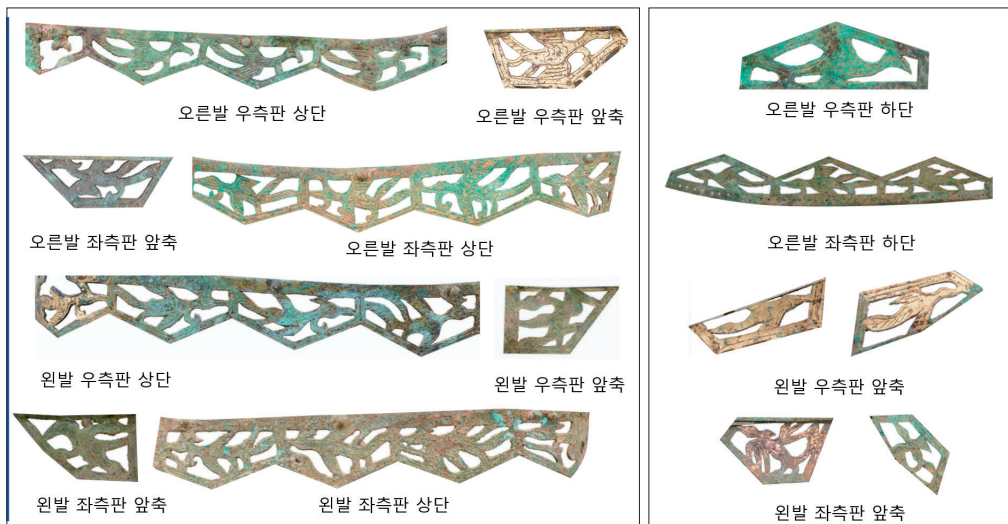
새는 『삼국지<sup>三國志</sup>』 위서<sup>魏書</sup> 동이전<sup>東夷傳</sup> 변진조<sup>弁辰條</sup>에 “큰 새의 깃털로 장사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sup>[死者]</sup>이 새처럼 날아다녔으면 하는 뜻이다”라는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는 일찍부터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며 영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왔다.

오른쪽 신발 우측판의 상단에는 신발 등쪽인 앞축에 깃이나 벼슬이 없는 새 한 마리와

14 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맑고 가벼운 것은 얇게 흩어져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응결되어 땅이 되었다. 맑고 가벼운 것이 모이는 것은 쉽지만, 무겁고 탁한 것이 응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하늘이 먼저 형성되고 땅이 나중에 안정되었다. 천지의 기운이 합해져 陰陽이 되고, 음양의 오묘한 기운이 사계절이 되며, 사계절의 정기가 흩어져 만물이 되었다. 陽을 쌓은 뜨거운 氣는 불을 만들고, 火氣의 精은 해가 되었으며, 日月이 넘쳐 精이 된 것은 星辰이 되었다. 하늘은 日月星辰을 받았고, 땅은 물, 빗물, 먼지, 락을 받았다. 『淮南子』 天文訓.

15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p.107 - 110.





도 8. 정촌고분 금동신발 새 무늬

신발 위쪽에 깃이나 벼슬이 없는 새 4마리 등 모두 5마리가 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하단의 새를 3마리로 추정하였지만, 필자는 마지막 부분의 미확인 대상품도 새무늬로 추정하였다.

신발 하단에도 구름무늬 중앙에 깃과 벼슬이 없는 새 한 마리가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신발 등쪽 새의 경우 다리가 보여 이제 막 비상하는 자세로 추정되며, 나머지 새는 다리가 보이지 않아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가장 앞쪽의 새는 앞서가는 우두머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른쪽 신발 좌측판의 상단 중 신발 등쪽에는 벼슬이 있는 새 한 마리와 신발 위쪽에 깃이나 벼슬이 없는 새 4마리 등 모두 5마리가 있다.

오른쪽 신발 좌측판의 하단 중 신발 앞측에 벼슬이 있는 새 한 마리와, 구름무늬의 가장 앞쪽에 3마리의 새가 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이것을 새 4마리로 추정하였지만, 필자는 마지막 새는 눈동자와 날개로 보아 비어飛魚로 추정하였다.

왼쪽 신발 우측판 상단 중 신발 등쪽에 벼슬 또는 깃이 있는 새 한 마리가 뒤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신발 위쪽에도 깃이나 벼슬이 있는 새 4마리 등 모두 5마리가 있다. 이들은 모두 다리가 보여 이제 막 비상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신발 하단에는 구름무늬 가장 앞쪽과 신발 등쪽에 벼슬이나 깃이 없는 새 한 마리가 각각 있다.

왼쪽 신발 좌측판 상단 중 신발 등쪽에 벼슬 또는 깃이 있는 새 한 마리가 뒤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신발 위쪽에도 깃이나 벼슬이 있는 새 4마리 등 모두 5마리가 있다. 이들은 모

두 다리가 보여 이제 막 비상하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구름무늬의 가장 앞쪽이자 신발 바닥의 가장 앞쪽에는 깃과 벼슬이 없는 새 한 마리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새들은 크게 벼슬이나 깃이 있는 새와 없는 새로 구분되는데, 필자는 벼슬이나 깃이 있는 새는 상상의 새로 천상의 새를 의미하며, 벼슬이나 깃이 없는 새는 매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오르는 새로 추정된다.

새의 배치를 보면, 오른쪽 신발은 지상의 새, 왼쪽 신발은 천상의 새가 중심이 된다. 왼쪽 신발의 경우 앞쪽에 지상의 새가 일부 등장하는 것도 이런 개념을 고려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창사長沙 마왕퇴 출토 승선도와 별자리 주변을 날고 있는 한대 화상석의 오학五鶴, 그리고 고구려 집안 무용총 널방 천정 벽화의 새이다(도 9).

마왕퇴 승선도에는 5마리의 검은목두루미가 있고, 그 아래에 다시 2마리의 검은목두루미가 있다. 무용총에는 연꽃 가지를 문 5마리의 학이 있다. 특히 『동국이상국집』에는 해모수가 용을 타고 내려오고, 종자從者 백여 명이 학鶴을 타고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sup>16</sup>

학은 선학仙鶴처럼 신선이 타는 동물로 승선昇仙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필자는 벼슬이나 깃이 있는 새는 학으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오르는 새로 추정한다.

신발 윗면에 우두머리를 포함하여 5마리의 새를 배치한 것 역시 한대부터 유행한 오학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한다.

고창 봉덕리고분 출토 금동신발 상하단에는 용과 새 그리고 인면조가 배치되어 있다(도 10~11). 오른발 우측판에는 상단에 쌍조와 오리 모양의 지상의 새 4마리 등 5마리가 있다. 앞쪽에 오리 모양의 지상의 새 2마리가 마주 보고 있으며, 하단에 지상의 새 2마리가 있어 모두 5마리가 된다.

하단에는 목과 꼬리가 긴 천상의 새 3마리가 더 있다. 왼발 우측판도 구성은 유사하지만, 상단의 용이 천상의 새로 바뀌어 있는 점만 차이가 있고, 왼발 좌측판 하단에 인두조가 등장한 점이 다르다.

봉덕리고분 출토 금동신발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의 새 무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깃과 벼슬이 천상과 지상의 새를 구분하는 특징이지만, 봉덕리고

16 『東國李相國集』卷3 古律詩 東明王篇, “海東解慕漱 眞是天子 初從空中下 身乘五龍軌 從者百餘人 騎鵠紛穆漚 清樂動鏘洋 彩雲浮旖旎 漢神 雀三年壬戌歲 天帝遣太子降遊扶余王古都 號解慕漱 從天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 白鵠彩雲浮於上 音樂動雲中 止熊心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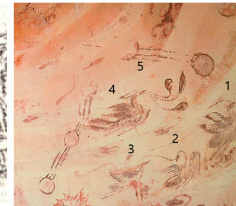
오학(창사 마왕퇴 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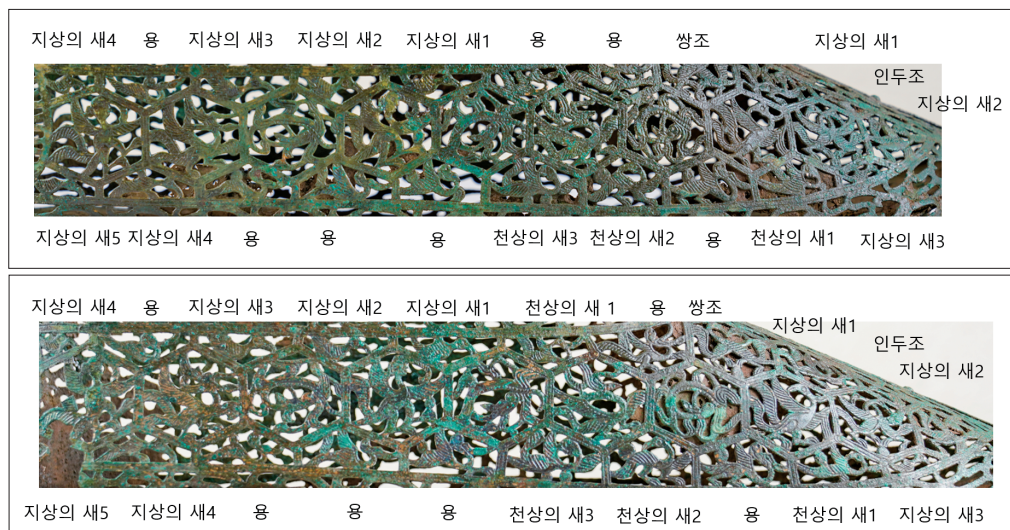
화상석 오학(남양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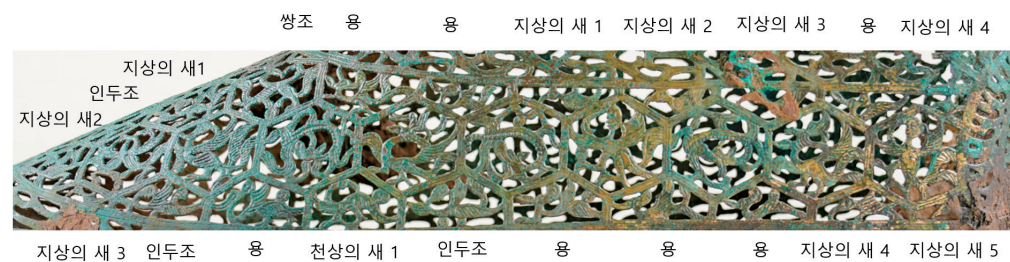
오학(무용총 벽화)



도 9. 오학(五鶴)



도 10. 봉덕리고분 금동신발(오른발 우측면, 왼발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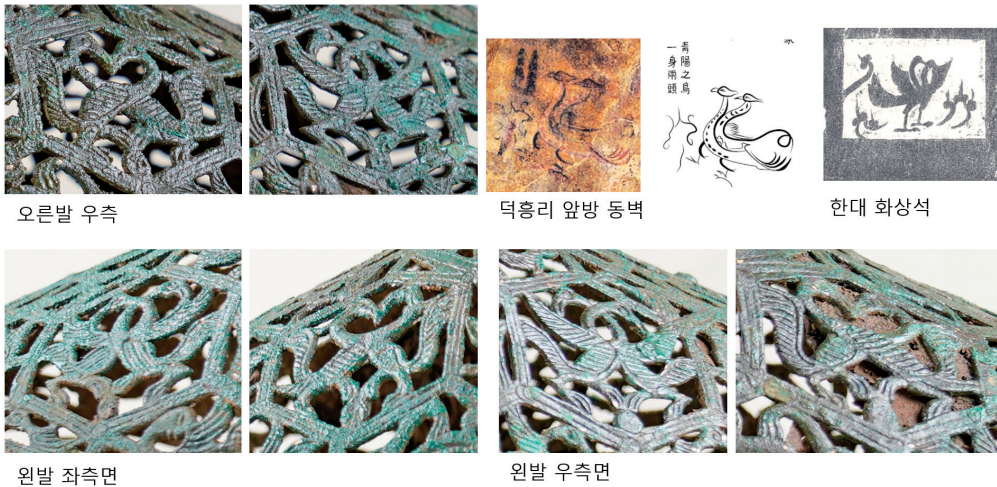


도 11. 봉덕리고분 금동신발(왼발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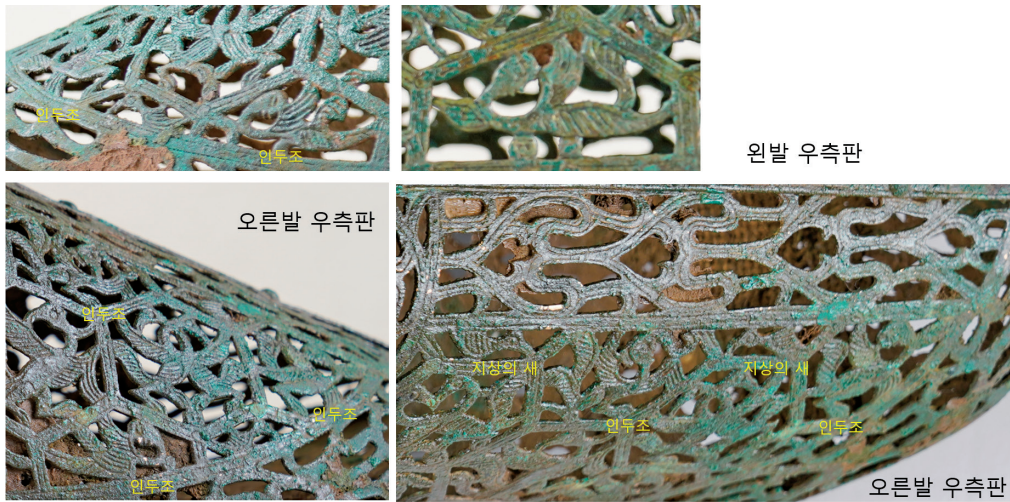
본 금동신발은 오리 모양의 형태와 목이 긴 학 형태의 모양이 천상과 지상의 새를 구분하는 특징이 된다.

또한 봉덕리 금동신발에는 쌍조와 인두조가 등장한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도 12~13).





도 12.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 쌍조 및 청양지조(비익조)



도 13. 인두조(人頭鳥)

쌍조는 덕흥리 벽화고분에 “청양지조靑陽之鳥 일신양두一身兩頭”라는 목서가 있는 청양지조로 추정된다. 청양지조는 비익조의 다른 말로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산해경山海經』 「서산경西山經」에는 “만민蠻蠻은 즉 비익조比翼鳥로, 붉고 푸른 빛갈이며, 두 마리가 나란히 붙어 있지 않으면 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아爾雅』에는 “검검조鵲鵲鳥라고 하였고, 옛사람들은 비목어比目魚·비익조比翼鳥·비견수比肩獸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중국 명나라 때 만들어진 백과사전인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비익조는 결흉국結匈國이라는

남쪽 나라에 있으며, 이 새들은 쌍이 같이 있지 않으면 날지 못하고 이름은 겹겹鵲鵲이다. 청적색의 새로 눈과 날개가 하나씩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마리가 같이 있어야 날 수 있다. 만약 통치자가 현명하여 덕재德才로 천하를 통치하면 비익조가 날아온다.”라고 하였다. 즉 길상의 상징으로 이미 한대 화상석에도 등장하며, 백거이의 「장한가」에도 등장한다.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의 쌍조는 날개가 하나로 가슴과 부리를 맞대거나 목을 교차하여 사랑을 상징하며, 서로 한쪽 발을 들어 연꽃봉오리 위에 맞대고 있다.

한편 새가 서로 마주 보는 쌍조문의 모티브는 『산해경』에도 등장한다. 즉 “오색 무늬의 새가 서로 마주 보고 너울너울 춤을 추는데, 이들은 제준帝俊의 하계下界 친구이다. 천제의 하계 두 제단을 오색 무늬의 새가 맡고 있다”<sup>17</sup>라는 내용이 있다. 원가袁珂의 『산해경교주山海經校注』에는 “제준帝俊은 신체가 현조玄鳥로, 신화적 수식을 거쳐 난조鸛鳥나 봉황의 종류가 되었다.”<sup>18</sup>라는 기록이 있다. 성윤길은 이에 주목하여 쌍조를 봉황으로 보았다.<sup>19</sup> 하지만 필자는 제준의 하계 친구라는 기사에 주목하여 봉황보다 위계가 낮은 학이나 매 또는 기러기로 본다. 특히 봉덕리 금동신발의 바닥의 하단 아래에는 끈이나 천으로 보이는 문양이 있는데, 『당회요唐會要』에 “매가 서초瑞草를 물고 있는 것, 기러기가 수대綬帶를 물고 있는 것, 혹은 서로 마주한 공작 문양의 비단 상의 사용을 허가한다.”<sup>20</sup>는 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즉 새가 천상의 봉황이 아니라 지상 세계의 새란 의미이다.

다음으로 정촌 출토 금동신발의 새는 매의 부리에 날개가 크고 넓은 것으로 보아 매로 생각된다. 매는 『제왕운기』에 백제의 별칭을 응준鷹隼으로 기록하였고,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석탑조에 백제를 응유鷹遊로 기록하고 있으며, 왕실의 상징으로 관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서도 방물로 이용되었다. 때문에 관모에 붙은 조형 장식도 매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sup>21</sup>

필자도 이러한 견해를 참조하여 정촌고분 금동신발에 보이는 벼슬과 깃이 없는 새를 매의 형상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백제의 옛 영역인 마한지역에서 유행한 솟대와 새무늬토기 조형 역시 매와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전통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발 등쪽 중앙에는 큰 벼슬과 깃이 있고, 날개가 3갈래로 벌어지며 꼬리를 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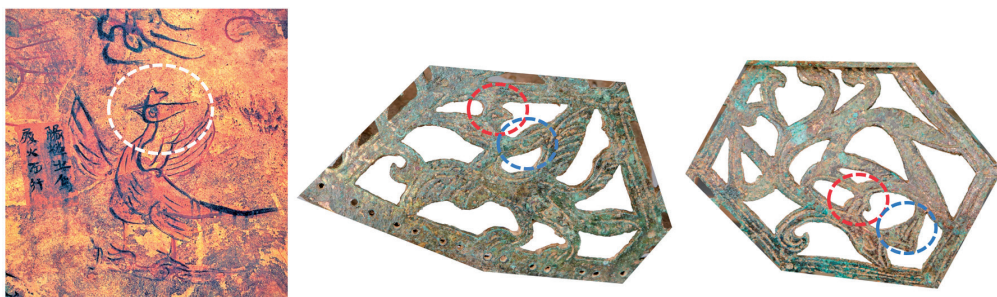
17 『山海經』大荒東經, “有五采之鳥 相鄉棄沙 惟帝俊下友 帝下兩壇 采鳥是司”.

18 정재서 역주, 『山海經』(서울: 민음사, 1985), p.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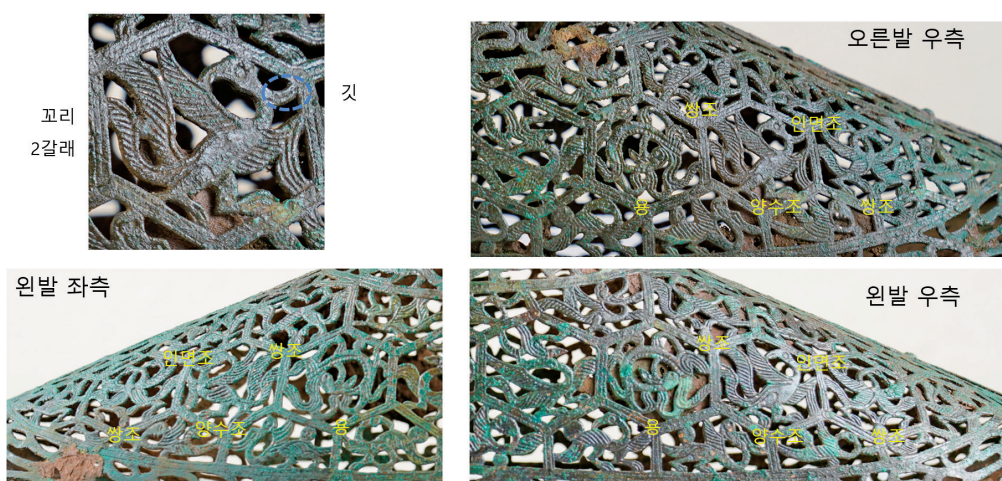
19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p.99 - 100.

20 『唐會要』卷32 異文袍 太和6年(832), “敕三品已上許服鵠銜瑞草 雁銜綬帶 及對孔雀綾袍襖(중략)”.

21 노중국, 앞의 논문(2011), pp.8 - 9.



도 14. 양수지조(덕흥리 벽화고분, 정촌 금동신발)



도 15.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 새

고 있는 큰 새가 있어 주목된다.

필자는 이 새는 덕흥리 벽화고분 동벽 천정에 있는 양수지조陽燄之鳥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도 14). ‘양수지조陽燄之鳥 이화이행履火而行’이란 묵서처럼 불을 가져다주는 새로 불을 밟고 가는 새이다. 양수지조의 특징은 벼슬에 큰 깃이 달려 있는데, 신발 등쪽 중앙의 새도 큰 벼슬과 깃이 있다. 발에 불은 없지만, 신발 등쪽에 구름무늬가 이를 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 앞측에는 양수지조로 추정되는 큰 새를 중심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쌍조가 있고, 큰 새 뒤쪽에 용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큰 새는 모두 뒤를 보고 있고, 큰 날개에 꼬리가 2개인 점이 특징이다(도 15).



#### 4) 용문龍文

정촌고분 금동신발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용무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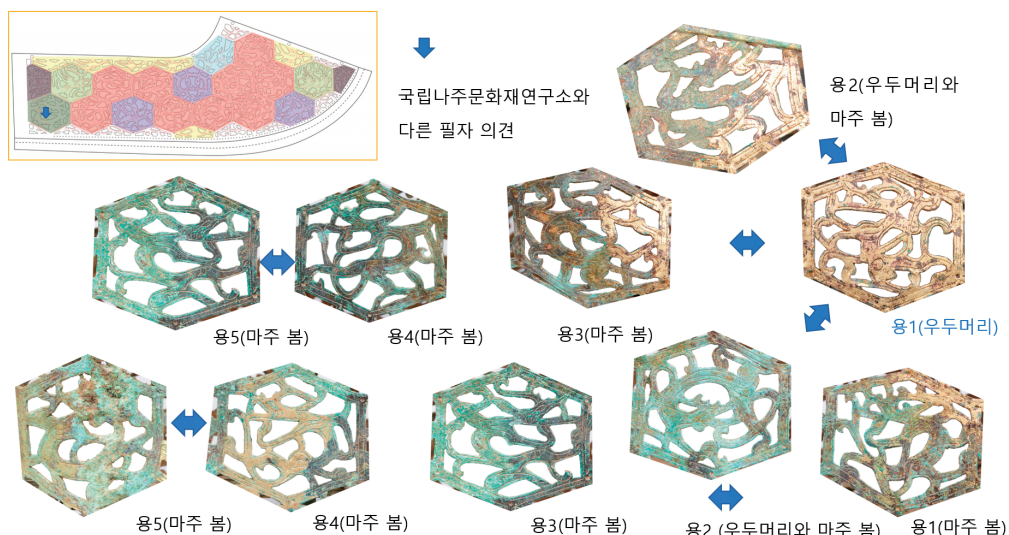
성윤길은 확실하게 용의 모습을 띤 것은 오른쪽 신발에 19개, 왼쪽 신발에 17개가 있다고 보았으며, 용은 죽은 사람을 태우고 천계 또는 선계로 가는 승천이나 승선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보았다.<sup>22</sup>

먼저 용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른발 우측판에는(도 16) 상단 육각문에 오룡五龍이 있고, 아래 하단 육각문에 다시 오룡이 배치되어 있다. 용은 모두 입을 벌리고 있다. 뒤쪽 좌우의 용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앞측에는 비상하려는 자세를 취한 우두머리 용이 상·하단과 그리고 중앙의 용과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오른발 좌측판도 동일한 구성이지만(도 17) 상단은 주로 입을 벌린 용이, 하단에는 주로 입을 다문 용이 각각 5마리씩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앞측에는 비상하려는 자세를 취한 우두머리 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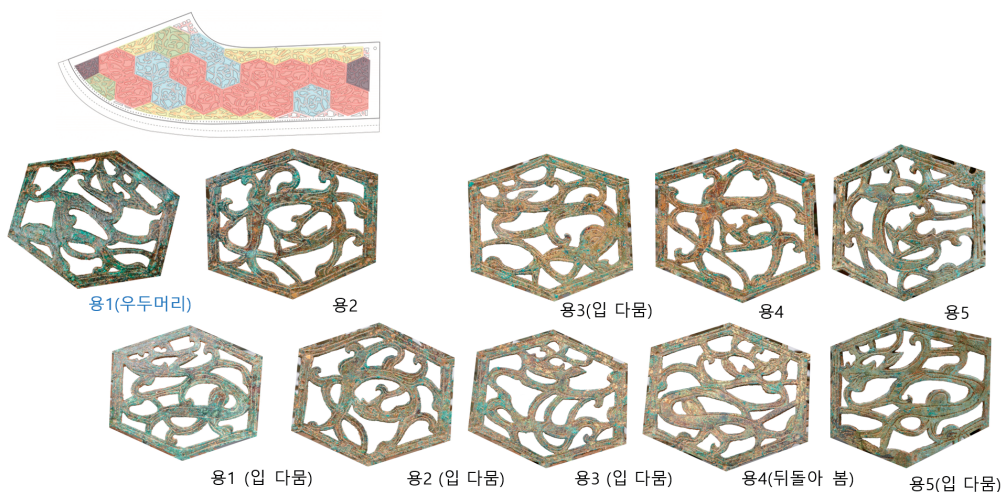
왼쪽 신발 우측의 상단에 응룡應龍, 하단에 붉은 이무기인 적리赤螭와 이제 뿔이 막 난 푸른 어린 규룡인 청규靑虯가 있다(도 18). 이들은 모두 뒤를 보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상단에는 응룡을 포함하여 오룡이 있고, 하단에는 적리와 청규를 포함하여 오룡이 있다.

왼쪽 신발 좌측의 상단에도 응룡을 포함하여 오룡이 있고, 하단에도 청규와 적리를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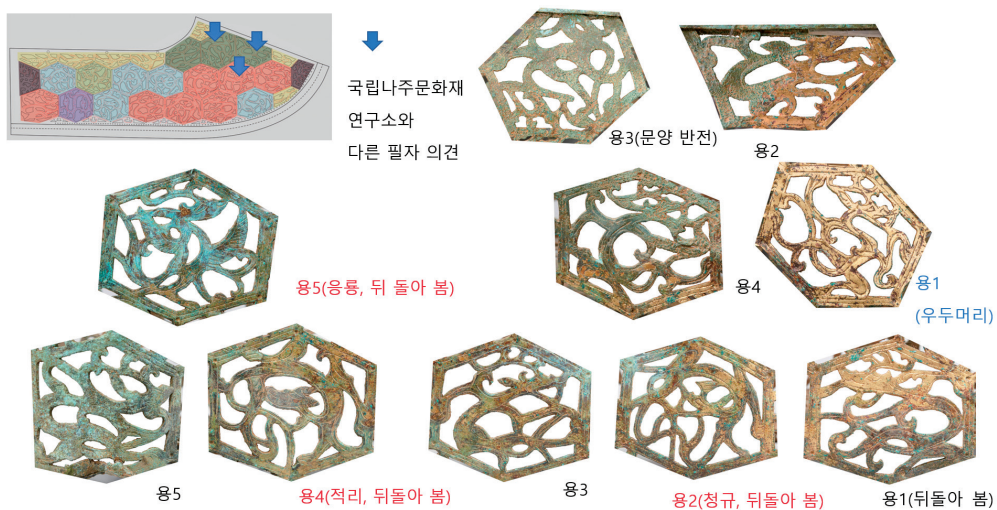


도 16. 정촌고분 금동신발 용무늬(오른발 우측판)

22 성윤길, 앞의 논문(2021), p.163.



도 17. 정촌고분 금동신발 용무늬(오른발 좌측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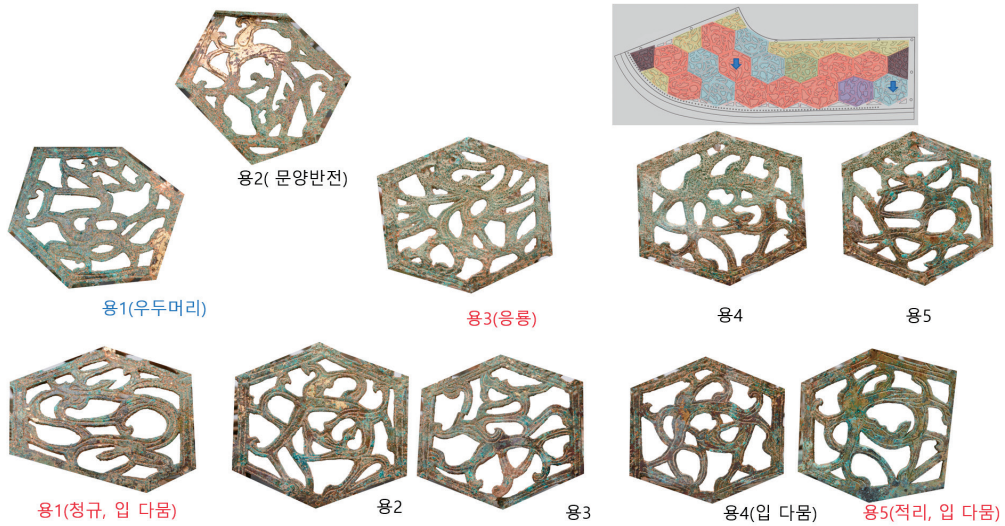


도 18. 정촌고분 금동신발 용무늬(왼발 우측판)

함하여 오룡이 있다(도 19).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발의 좌우측에는 오룡과 오룡이 결합한 십룡이 있다. 또한, 신발의 앞측에는 비상하려는 자세를 취한 우두머리 용이 있다. 그리고 서로 마주 보거나 앞이나 뒤를 보는 진행 방향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단의 용 중 2마리는 제작자의 실수로 문양이 반전되어 있는데, 이는 신발의 가장 위쪽에 있어 도형을 모양에 맞추려다 일어난 실수로 생각된다.





도 19. 정촌고분 금동신발 용무늬(왼발 좌측판)

정촌 금동신발의 용은 대체적으로 오룡의 법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크게 상단의 오룡과 하단의 오룡이 합쳐진 규칙성이 보인다. 오룡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온다는 『동국이상국집』과<sup>23</sup> 『삼국유사』<sup>24</sup>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즉 오룡의 법칙은 고구려의 해모수 설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용의 서열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낙신부도에는 신녀 복비가 육룡거六龍車를 타고 있으며, 육룡거 주변에 우두머리 용인 두룡頭龍이 있고, 뒤에 이룡二龍과 비어飛魚 2마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도 20).

반면에 팔룡은 『초사楚辭』 원유편遠遊篇에 “아침에 태의太儀를 출발하여, 저녁에 미려微閭에 도착했네. (중략) 여덟 마리 용을 몰아 구불구불 길을 가니 꽃힌 운기는 바람에 펄럭이고, 무지개 그려진 채색 깃발을 세우니 알록달록한 오색 눈부시고 찬란하네”라는 글에 등장한다.

정촌 금동신발에는 낙신부도처럼 우두머리 용인 두룡頭龍이 나머지 용을 이끌고 가고

23 『東國李相國集』 卷3 古律詩 東明王篇, 앞의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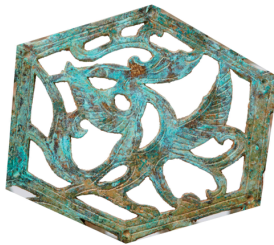
24 北扶餘條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天帝 降于訖升骨城在大遼醫州界 乘五龍車立都 稱王國 號北扶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移都于東扶餘 東明帝繼北扶餘 而興立都于卒 卒州爲卒卒扶餘 即高句麗之始見下 『三國遺事』 卷第1 紀異 第一.



도 20. 전 고개지, 〈낙신부도〉, 동진 4세기, 견본채색, 27.1×572cm, 베이징 고궁박물관



청규(용머리에 벼슬형 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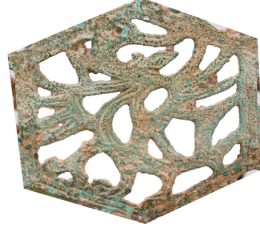
응룡(용머리에 뿔과 날개가 있음)



적리(용머리에 뿔이 없음)



청규(용머리에 조금 자란 뿔)



응룡(용머리에 뿔과 날개가 있음)



적리(용머리에 뿔이 없음)

도 21. 응룡 그리고 적리와 청규(원발 우측판과 좌측판)

있는데, 두룡은 신발의 앞쪽에 위치하여 앞을 보고 마치 비상을 시작하려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21).

응룡은 날개가 달린 전설 속의 용을 말하는데,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쓴 『대인부大人賦』에 “하늘에는 붉은빛이 아득히 멀리 퍼지나 희끄무레하고, 맹렬한 바람이 솟아오르고 구름 기운이 떠오른다. 응룡 모양의 수레를 타고, 적리와 청규를 부마로 삼고 머리를 흔들며 구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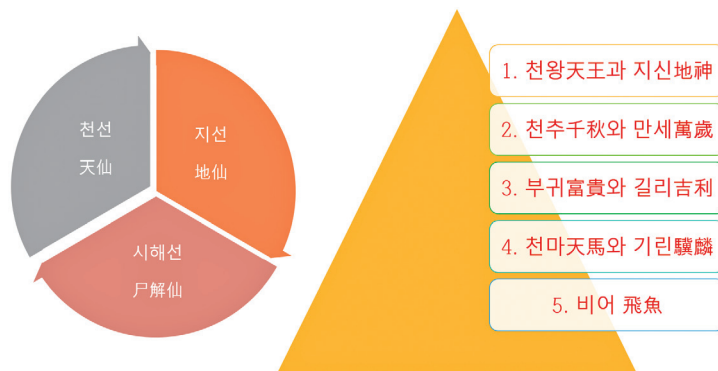
구불 간다.”<sup>25</sup>라고 하고 있다. 한편 적리는 전설상의 뿔이 없는 붉은 새끼 용 혹은 뿔이 없는 암컷 용,<sup>26</sup> 청규는 규룡虯龍 즉 용의 새끼로서 뿔이 있는 전설상의 동물<sup>27</sup>이라고 한다. 이에 성윤길은 적룡과 청룡은 부마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추적인 역할의 용룡은 중앙 육각문에 조금 더 크게, 나머지 용은 보조 역할로 오각형 속 작은 크기의 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sup>28</sup>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만, 적리와 청규를 각각 하나의 용으로 보고자 한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용룡을 다시 봉황으로 보고 있다.<sup>29</sup> 하지만 왼쪽 신발 우측판의 문양을 자세히 보면 봉황의 벼슬이 아닌 용의 뿔이 있고, 귀도 봉황처럼 작지 않고 용의 사슴 귀처럼 길게 표현되어 있고, 입과 코도 봉황의 부리가 아닌 용의 턱과 용의 돼지코 형상이며, 발도 용의 도상인 호랑이 발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꼬리 역시 봉황의 특징인 길게 올려세운 3갈래 꼬리보다 용의 특징인 뱀의 몸처럼 표현되어 있다.

적리는 뿔이 없는 용으로 용의 머리와 몸을 가졌지만, 뿔이 보이지 않는다. 청규는 뿔이 막 자라기 시작한 규룡으로 왼쪽 신발 우측판의 적리는 뿔이 마치 벼슬처럼 표현되어 있고, 왼쪽 신발 좌측판은 돌기가 표현되지 않았으며, 입을 다물고 있다.

## 5) 신선의 세계와 길상 무늬(도 22)



도 22. 신선의 세계와 길상문양

25 紅杳渺以眩湄兮 森風涌而雲浮 駕應龍象輿之螭略透麗兮 驂赤螭青蚪之幽穆婉誕 “『史記』列傳 司馬相如列傳”.

2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漢韓大辭典』(2008), p.267.

27 이상은 감수, 『漢韓大字典』(서울: 민중서림), p.1090.

28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p.91 - 92.

2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1), pp.94 -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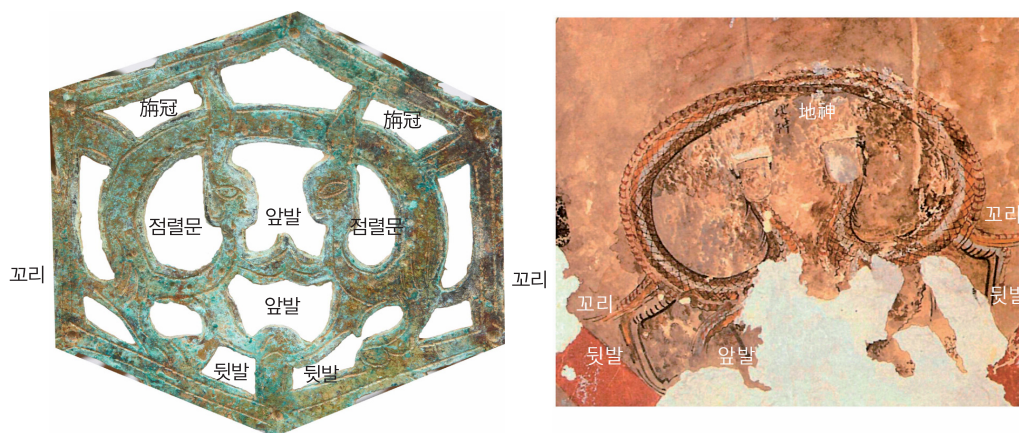
(1) 일신양두一身兩頭, 지신地神

일신양두는 몸의 양 끝에 두 개의 얼굴이 있는 무늬이다. 모두 3개로 오른쪽 신발에는 서로 마주 보고 있고, 왼쪽 신발의 두 개는 앞을 보고 나아가는 모습이다(도 23~24).

먼저 오른쪽 신발의 문양은 고구려 고분벽화인 평안남도 순천시 북창면 북창리의 천왕지신총天王地神塚의 지신과 비슷하다.

먼저 머리부터 살펴보면, 정촌 금동신발은 머리에 신선이 쓰는 위로 높이 올라간 깃발 모양의 전관(冠) (도 25)을 쓰고 있으며, 천왕지신총의 지신은 머리에 삼산관으로 추정되는 하얀 관을 쓰고 있지만 훼손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얼굴의 형태는 정촌 금동신발의 경우 왼쪽 조금 크고 각지며 오른쪽이 조금 적고 둥글어 차이가 있는데, 천왕지신총이 이와 반대이다. 목은 천왕지신총의 경우 길고, 정촌 금동신발이 제한된 공간 때문에 축소되어 있다. 몸은 뱀의 몸으로 천왕지신총이 여러 색을 띠는 비늘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지만, 정촌 금동신발이 축조선(軸線)과 점렬문(點列紋)으로 간략화하였다. 같기는 천왕지신총의 경우 목에 있지만, 정촌 금동신발이 뒷발 주위에 표현되어 있다. 꼬리는 두 문양 모두 양 뒷발 뒤로 표현되어 있다. 발은 천왕지신총의 경우 서로 마주 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지만, 정촌 금동신발이 앞발을 위아래로 맞대고 있으며, 특히 아래의 발에는 연꽃봉오리 위에 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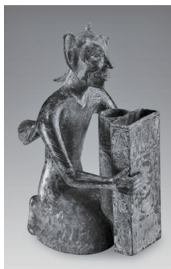
왼쪽 신발 우측판의 일신양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앞선 사람의 뒷발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앞발로 받쳐주고 있다. 왼쪽 신발 좌측판의 일신양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앞선 사람의 꼬리가 뒷선 여성의 가슴에 있다. 즉 두 문양 모두 접촉을 통해 교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 문양의 머리는 신선의 관인 전관이 표현되어 있고, 신선의 특징 중 하나인 긴 귀



도 23. 지신(정촌 금동신발 일신양두, 천왕지신총 지신 모사도)



도 24. 정촌고분 금동신발 지신(왼발 우측판, 왼발 좌측판)



靑銅羽人 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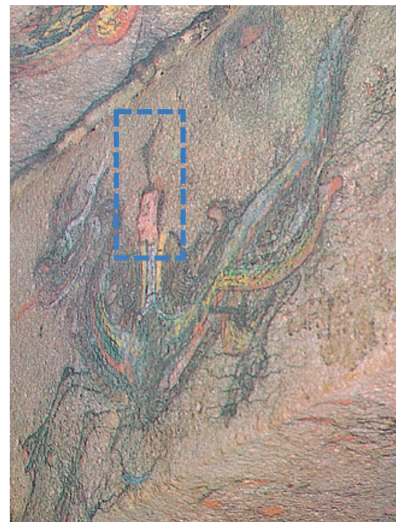
선학신선 통구 사신총 벽화



靑銅羽人 동한



기린 탄 신선 통구 오회분 5호묘



용을 탄 신선 통구 오회분 4호묘

도 25. 신선(큰 귀와 전관)

가 표현되어 있다(도 25). 한편 우측판의 일신양두에는 뱀의 몸을 나타내는 점렬문이 있지만, 좌측판에는 점렬무늬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양에 대해 성윤길은 천왕지신총의 지신地神 묵서와 남포 덕흥리 고분의 지축地軸 묵서를 고려하여 지신으로 보고 있는데<sup>30</sup>, 필자도 동의한다.

30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77.

다음으로 지신의 원형에 대해 성윤길은 “연유는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좌우에 머리가 달려 있고 주자 색 옷을 입었으며 전관을 썼다. 인주가 잔치를 벌여 그를 먹이면 천하의 백伯이 된다’고 하였다<sup>31)</sup>”라는 기록에 주목하였다. 사람 머리에 뱀의 몸, 좌우에 머리가 달렸다는 점, 관을 썼다는 점, 특히 전관이 ‘깃발모양의 관’이라는 점으로 보아 형태상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천하의 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천하의 주인이며, 세상의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정촌고분의 피장자는 지신地神 혹은 이와 유사한 힘을 가진 인물로, 정촌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세상의 중심인 지축地軸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2)</sup>

다만 천왕지신층에는 봉황을 타고 깃발을 든 천왕이 있지만, 정촌 신발에는 천왕이 등장하지 않는다. 때문에 천하의 백이 천왕이 아니고 지신이 된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필자는 지신의 원형을 뱀의 몸으로 천지를 창조한 복희와 여와에서 찾고자 한다.

지신의 얼굴이 다른 점은 남녀를 표현한 것인데, 허난성河南省 남양십리포南陽十里鋪 출토 한대 화상석에 있는 일신양두의 상이 참고가 된다. 이 일신양두는 태양의 신인 삼족오 무늬 아래에 남녀와 아이까지 표현되어 있어 주목된다. 때문에 지신의 원형은 연유보다는 복희와 여와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특히 덕흥리 고분의 지축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주관하는 북두칠성 아래 있어 연관성이 더욱 깊다(도 26).



‘地軸一身兩頭’ 지축은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이다.

도 26. 덕흥리 벽화고분 지축과 허난성 남양십리포(南陽十里鋪) 출토 화상석

31 『山海經』「海內經」有神焉 人首蛇身 長如轅 左右有首 衣紫衣 冠旃冠 名曰延維 人主得而饗食之 伯天下

32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80.



## (2) 천추千秋와 만세萬歲

천추와 만세 문양을 시각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악군 대추리 안악 1호분과 남포시 덕흥리 벽화고분, 천왕지신총 벽화이다. 먼저 덕흥리 벽화고분에 ‘천추지상千秋之象’과 ‘만세지상萬歲之象’이라는 방제傍題가 있어 참고가 된다(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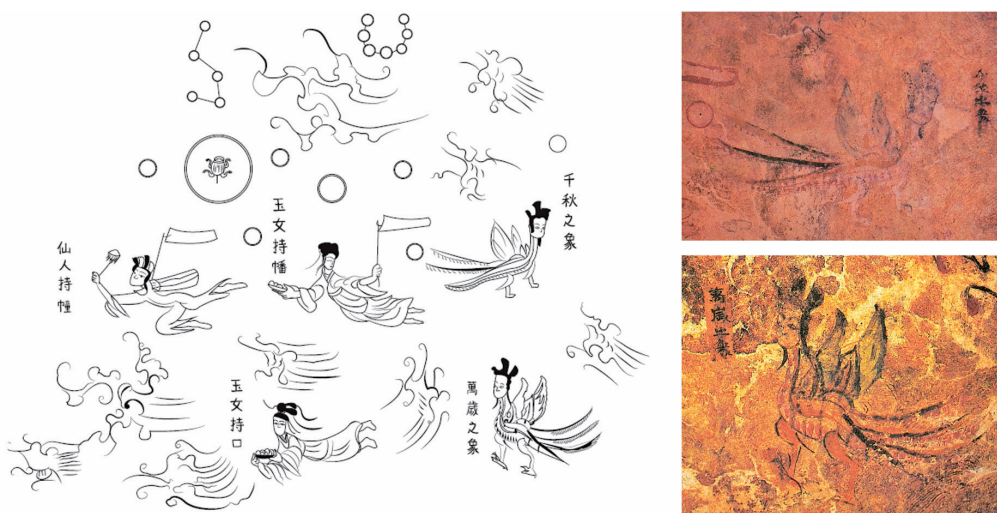
이 천추만세상은 지축이 북극성에 주변에 있는 것과 달리 월상月像이 있는 서벽 천정에 있고, 주변에 옥녀와 선인들이 있다. 천추와 만세는 새의 몸에 남녀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는데, 머리에 선인과 같은 삼산관을 쓰고 있다.

천왕지신총에는 새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천추상이 있다.<sup>33</sup>

천추만세는 문헌에 “천추千歲의 새, 만세萬歲의 짐승 모두는 인면조신人面鳥身으로 수명 또한 그 이름과 같다.”라고 하였다.<sup>34</sup> 천추와 만세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장수長壽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도상의 시원은 창사 마왕퇴 승선도에 등장한 두 마리의 새와 한대 화상석에 보이는 편작扁鵲에서 찾아볼 수 있다(도 28).

승선도에는 비둘기 몸에 사람 얼굴을 가진 상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비둘기는 장수



도 27. 덕흥리 고분 서벽 천정의 천추지상과 만세지상

33 천왕지신총에 천추상은 ‘천추(千秋)’ 방제가 있어 명확하나, 만세상은 방제가 확인되지 않는다. 東湖는 천추상의 對面인 서면의 獸頭鳥身상을 만세로 본다. 東湖, 「北朝·隋唐と高句麗壁畵」,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80(1999), p.276.

34 『抱朴子』內篇 對俗篇...(중략)千歲之鳥, 萬歲之禽, 皆人面而鳥身, 壽亦如其名(하략)...



도 28. 승선(창사 마왕퇴 무덤) 및 편작[산둥성 웨이산호(微山湖) 양성산(兩城山) 출토 화상전]



도 29. 하조(남포 덕흥리 벽화고분 천정 북벽, 백제 금동대향로)

한 노인에게 주는 지팡이인 구장鳩杖처럼 장수의 상징이다. 편작은 새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병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역시 장수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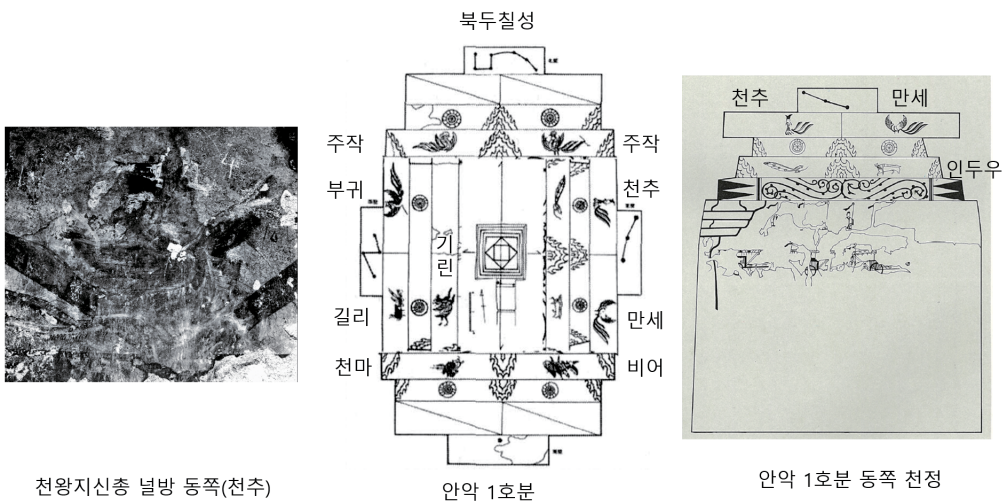
덕흥리 고분의 하조賀鳥는 목서에 “하조의 상으로 학문을 이루지 못해 등에 약통을 지고 다닌다賀鳥之像學道不成背角藥口”라는 목서가 있으며, 백제 대향로에도 등장한다(도 29). 하조는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불로장생의 신선 상징으로 역시 질병을 치료하는 편작의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고분벽화는 덕흥리의 경우 천추와 만세가 새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천왕지신총과 안악 1호분은 훼손으로 만세의 얼굴을 자세히 알 수 없다(도 30).

한편 중국 허난성河南省 덩저우시鄧州市 학장묘學莊墓와 장쑤성江蘇省 창저우시常州市 남조묘南朝墓 출토 문양전에도 천추만세千秋萬歲가 보인다. 천추상은 인면조신人面鳥身, 만세상은 수두조신獸頭鳥身으로 표현되어 고구려 고분벽화와 다르다(도 31).

또한 천추의 머리에는 신선의 관인 전관이 있고, 옷 역시 신선의 복장으로 추정된다.





도 30. 고분벽화에 보이는 천추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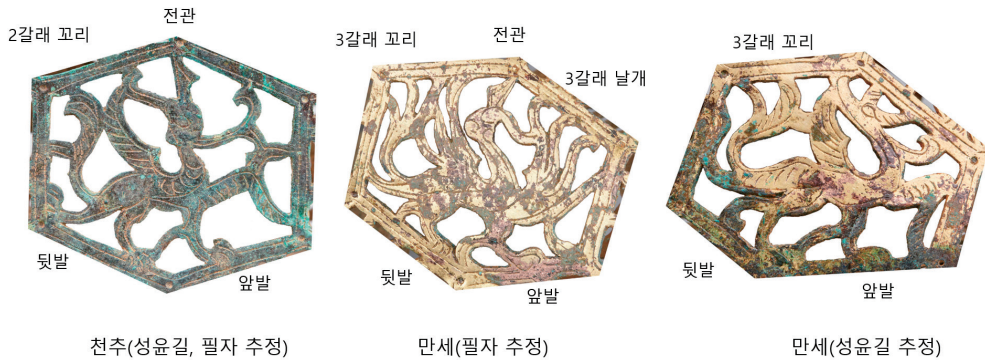


도 31. 중국 화상석의 천추 만세

이러한 관점에서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동신발의 천추와 만세상의 문양을 처음 추정한 사람은 성윤길이다. 천추상의 존재는 필자도 동의하여, 만세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도 32).

성윤길은 비록 얼굴이 다르지만, 날개 표현과 세 갈래 꼬리가 동일하고, 다리도 두 개로 볼 수 있으며, 허난성 덩저우시 출토 화상전 만세처럼 고개를 들어 먼 곳을 응시하고 있으며, 허난성 덩저우시 화상전과 천왕지신총 만세의 예처럼 수두조신獸頭鳥身 만세도 있기 때문에 짐승머리상을 만세로 보았다.<sup>35</sup> 또한 피장자의 영생永生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금동신

35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85.



도 32.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천추 만세상(오른발 우판)



도 33. 금동제안교장식, 라오닝성 차오양시 십이대영자(十二台營子) 88M1, 전연(337~370)

발에 표현했다고 하였다.

다만 필자는 만세상 추정의 근거를 신선의 관인 전관과 네발의 짐승 다리에서 찾았다. 특히 필자 추정 만세상은 천추처럼 둥근 머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고개를 돌려 서로 마주 보는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천추와 만세상은 새의 얼굴이지만, 남조 묘 화상전의 상은 새와 짐승의 머리로 구별되고, 만세의 발도 짐승 발로 변화 발전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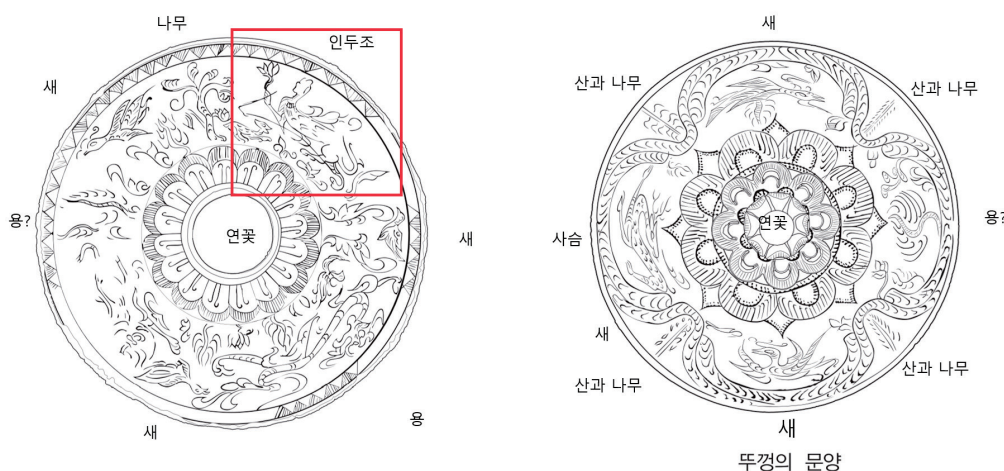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기는 라오닝성遼寧省 차오양시朝陽市 금동제안교와(도 33) 덕흥리 벽화고분을 고려하면 5세기 초까지는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5세기 초부터 새와 짐승의 조합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은 이러한 변화의 과도기적 양상을 띠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창 봉덕리 신발에 보이는 큰 인도조(도 34)도 2개가 쌍을 이룬 점에서 천추와 만세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후 천추와 만세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 은잔처럼 앞발에 연꽃을 들고 네발에 긴 꼬리



도 34.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 원발의 인두조



도 35. 인두조(공주 무령왕릉 은잔)

를 가진 짐승의 몸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도 35).

사비기가 되면 천추와 만세는 백제 대향로처럼 신선이 사는 세상에 속에 작은 존재로 그 의미가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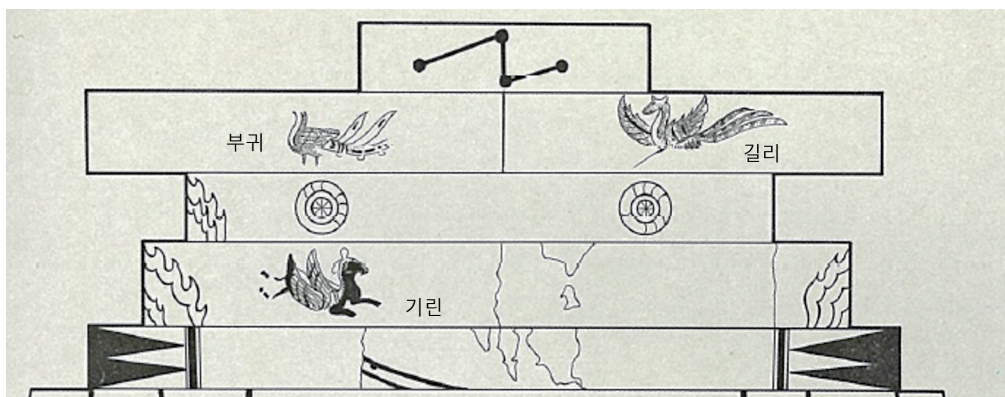
### (3) 부귀富貴와 길리吉利

고분벽화에 천추와 만세가 등장하는 곳에 부귀와 길리도 함께 등장한다.

덕흥리 벽화에는 연꽃 가지를 든 선인 아래 길리지상과 부귀지상의 글자가 있는 길리







도 38. 부귀와 길리(안악군 대추리 안악 1호 벽화고분)



도 39. 부귀지상 길리지상(정촌고분 금동신발 오른발 우측판)

안악 1호분의 경우도 봉황의 몸으로 표현되어 있다. 부귀는 얼굴이 훼손되어 알 수 없고, 길리는 말머리 형상이다(도 38).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정촌고분 금동신발 문양의 부귀와 길리를 추정하고자 한다(도 39).

먼저 필자가 부귀상으로 추정한 문양에 대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봉황으로 추정하였다.<sup>36</sup> 하지만 필자는 머리의 깃과 큰 날개 그리고 3개의 꼬리가 봉황과 유사하지만, 새의 발이 아닌 4개의 짐승의 발에 주목하고자 한다. 길리상은 성윤길이 만세로 비정한 문양<sup>37</sup>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 상은 큰 날개에 3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리가 짐승처럼

36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1), p.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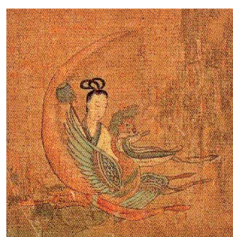
37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8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1), p.107.

4개이며 큰 눈에 양 귀를 세운 말의 형상과 유사하다. 또한 부귀와 길리가 머리를 뒤로 돌리고 있는 점도 같다. 대체로 부귀의 얼굴은 새와 유사하고, 길리의 얼굴이 말과 비슷한 점도 고려하여 비정하였다. 이러한 점은 금동신발이 고구려 고분벽화보다 늦게 제작되어 시기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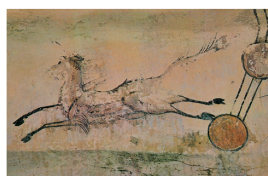
#### (4) 사슴[鹿]

성윤길은 두 귀의 짐승류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신발 좌측에 4개, 왼쪽 신발 좌우측에 각각 4개씩 확인되어 모두 12개로 서수瑞獸로 특정하였다. 덧붙여 기린이 봉황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문헌 기록, 비록 금동신발의 짐승에 빨은 없지만 기린이 큰 사슴의 몸이라고 문헌에 언급된 점, 금동신발에 사슴으로 추정되는 짐승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기린과 함께 짝을 이루는 봉황도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두 귀의 짐승을 기린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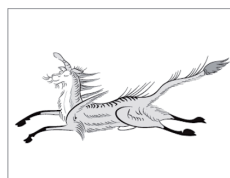
아울러 아래의 기록을 근거로 빨의 유무가 기린의 특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기麒 즉 수컷에 빨이 있다고 하고, 『이아爾雅』에서는 빨이 없는 것이 기麒이라고 하여, 모순되게 기록되어 있다. 『이아익爾雅翼』에서도 기麒은 인수仁壽이고 암컷을 ‘인麋’이라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의 주에는 ‘기麒’과 ‘인麟’이 같고 빨이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빨이 있는 것이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린을 표기할 때 ‘기麒’을 사용하기도 하고 ‘기麟’로도 쓰기 때문에 빨의 유무로 기린을 특정하기가 힘들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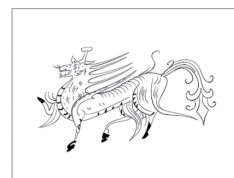
기린을 탄 복비(낙신부도)



기린(무용총)



기린(麒麟)  
무용총(無用洞) 남방 서쪽 천장고인  
Girin, ceiling of the northeast side of the main chamber,  
Myungchong To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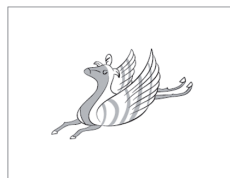
기린(麒麟)  
삼성총(三聖洞) 제2실 서쪽 천장  
Girin, ceiling of the north side of the second main chamber  
Samukchong Tomb



기린을 탄 신선(오회분 5호묘)



기린(안악 1호분)



기린(麒麟)  
안악1호분(安岳一號洞) 남방 서쪽 천장고인  
Girin, ceiling corbel of the west side of the main chamber,  
Anak Tomb No. 1



기린(麒麟)  
강서대묘(江西大墓) 남방 서쪽 천장고인  
Girin, ceiling corbel of the northwest side of the main chamber,  
Gangsookemyo Tomb

#### 도 40. 기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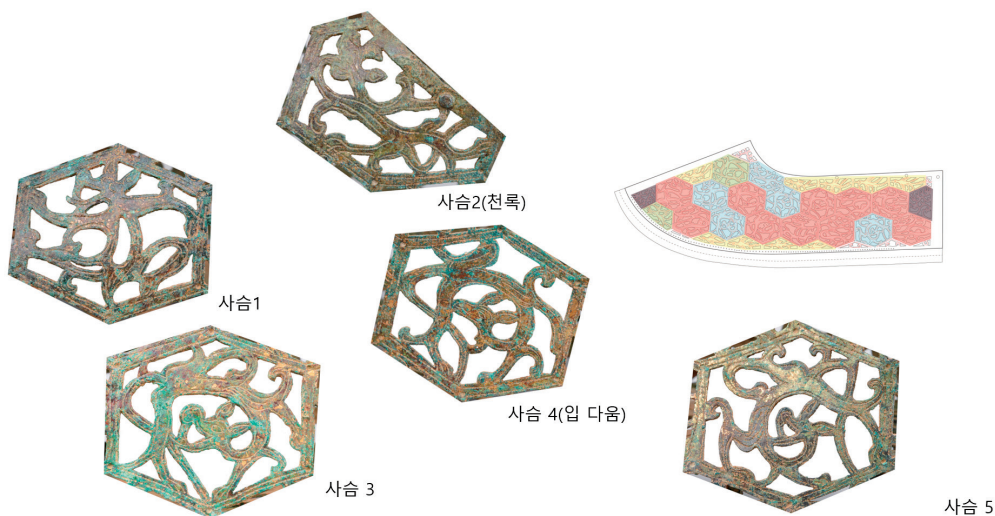


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기린은 사슴의 몸에 하나의 뿔을 가지고 있고, 천마는 말의 몸에 뿔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낙신부도에서도 기린의 머리에는 뿔이 표현되어 있다(도 40). 때문에 필자는 초기의 혼란 시기를 거쳐 금동신발이 만들어진 5세기 대에는 기린의 가장 큰 특징이 사슴 몸에 하나의 뿔로 고정화된 것으로 추정한다. 때문에 이들 짐승무늬는 기린보다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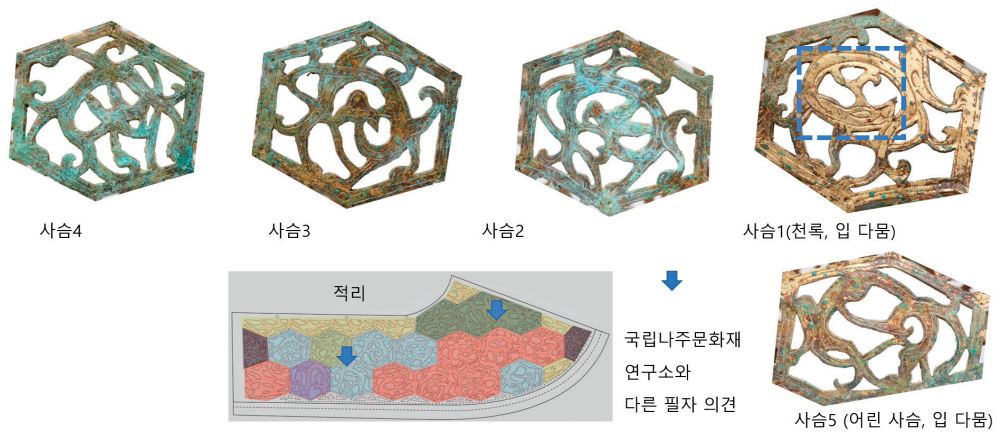
사슴은 태평성세에 상서로움을 주는 동물로 사슴을 탄 선인은 장수를 한다고 전해진다. 또한 호랑이, 토끼와 더불어 1,000년을 산다는 믿음에 따라 영생관념을 표현하는 소재로 표현되었다. 특히 사슴이 천년을 살면 청록靑鹿, 다시 오백 년을 더 살면 백록白鹿, 백록이 오백 년을 더 살면 현록玄鹿이 된다고 한다.

먼저 사슴은 오른발 우측면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한쪽 면에 모두 5마리씩 배치된 규칙성이 보인다. 때문에 고구려 벽화고분에 기린이 1마리 등장하는 것과 비교되어 사슴으로 추정하였다(도 4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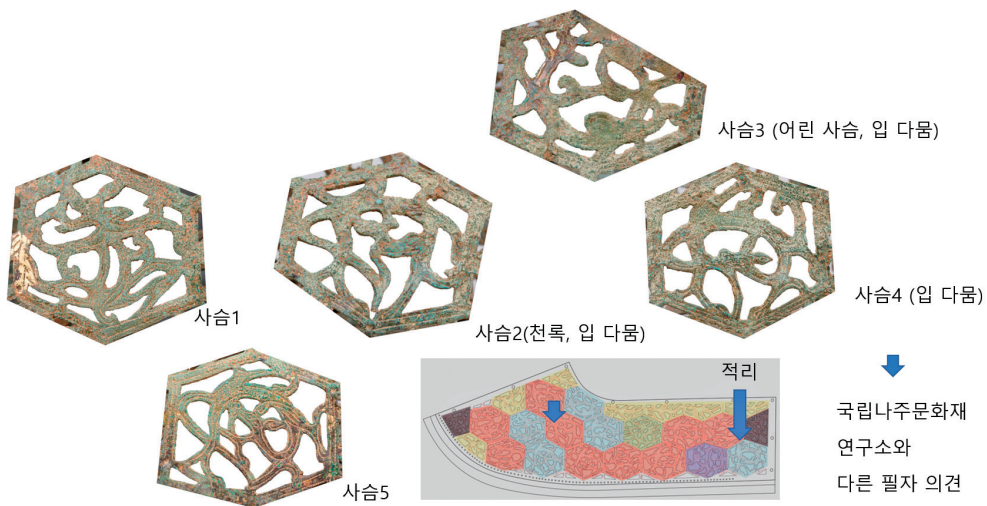
또한 사슴의 표현은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며, 입 모양 역시 용처럼 벌린 입과 다물고 있는 입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용처럼 규칙성이 있다. 뿔을 가진 것은 암컷 그리고 뿔이 없는 것은 수컷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교미기에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명의 암컷을 거느리는 사슴의 생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슴 가운데 가장 앞쪽에서 무리를 이끄는 사슴은 용처럼 비상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우두머리로 추정되는데, 뿔이 없는 경우도 있어 생태적 관점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없다.



도 41. 정춘고분 금동신발 사슴(오른발 좌측판)



도 42. 정촌고분 금동신발 사슴(원발 우측판)



도 43. 정촌고분 금동신발 사슴(원발 좌측판)

때문에 필자는 신성성 측면에서 뿔이 있는 사슴을 천록天祿이나 기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한다. 천록天祿은 임금이 선정을 베풀 때 모습을 드러내며 벽사의 기능을 가진 신령한 짐승으로 뿔이 하나이며, 벽사闕邪는 뿔이 2개이다. 아울러 기린과 대비되는 천마天馬가 등장하지 않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준다.

#### (5) 비어飛魚(도 44)

비어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물고기로 날개와 다리를 지녔다. 비어를 먹으면



병을 치료하고 두려움을 없애며, 비어가 나타나는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오른발 좌측판 하단)에는 3마리의 새와 함께 비어가 등장한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하단의 문양을 모두 새로 추정하였지만<sup>38</sup>, 필자는 마지막 새는 입과 작은 눈, 그리고 뒷지느러미와 날개 등을 보아 비어로 추정한다.

비어는 안악 1호분에 다리와 날개가 표현되어 있는데 기린과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덕흥리 벽화고분에는 ‘비어□상’이란 글자와 함께 표현되며, 강서대묘에 새의 몸에 물고기의 얼굴을 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나르는 물고기인 비어는 용과 함께 신선을 하늘로 오르게 하는 신령스런 것으로 한대 화상석에는 물의 신 하백을 수레에 태우고 가는 그림과 낙신부도의 용수레 주변에도 등장한다.



도 44. 비어(飛魚)(정촌고분 금동신발 오른발 좌측판 하단, 덕흥리 벽화고분, 강서대묘, 안악 1호분)

## 4. 바닥 문양

### 1) 문양 구성

정촌고분 금동신발 바닥의 문양 구성은 크게 중앙의 연꽃무늬를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에 괴수를 배치한 구성으로 스파이크는 3개씩 8줄로 모두 24개이다(도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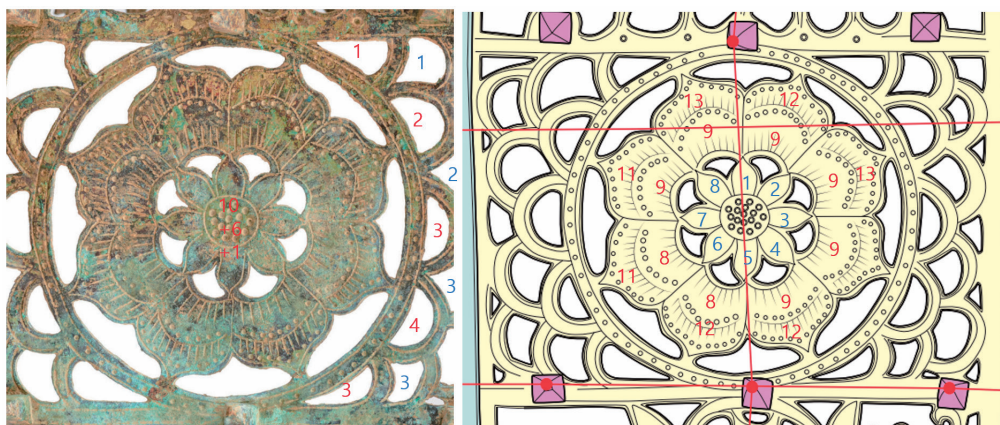
38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1), p.117.

연꽃은 중앙의 씨방인 자방과 꽃수술이 왼쪽은 17개(1+6+10)이지만, 오른쪽 신발은 12개(3+9)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꽃수술은 왼쪽은 안쪽은 8~9개와 11~13개이지만, 오른쪽 신발은 자방처럼 수량이 적게 표현되어 있다(도 46).

연꽃은 중앙의 씨방인 자방과 수술의 표현은 덕화리 벽화고분 천정 연꽃과 표현 방법이 유사하다. 중앙의 작은 꽃잎에 간엽間葉을 표현하고, 다시 더 큰 연꽃에 간엽을 표현하여 화려한 겹꽃을 나타낸 것은 쌍영총 고분벽화의 연꽃과 유사하다. 다만 금동신발은 투조로 간엽을 파내어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아울러 만개한 연꽃의 풍성함을 외곽의 둥근 원 밖에



도 45. 정촌고분 금동신발과 봉덕리고분 금동신발 바닥 장식



도 46. 정촌고분 금동신발 바닥 장식(원발)



도 47. 연꽃장식(덕화리 벽화고분, 쌍영총 벽화고분, 정촌 오른발, 공주 무령왕릉 은잔 뚜껑)

물결무늬 혹은 퍼지는 꽃잎으로 동작성을 가미하였다.

고분벽화의 경우 연꽃은 4세기 중엽의 안악 3호분의 연꽃은 단엽으로 간엽이 표현되지만, 겹꽃의 화려한 연꽃의 표현은 쌍영총 고분벽화처럼 5세기 후반~6세기에 유행한 양식이다. 무령왕릉 은잔 뚜껑의 화려한 겹꽃의 연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연꽃은 불교적 상징성 뿐만 아니라 고분벽화의 천정에 배치된 점을 고려하면, 신선계 중 하늘의 천정 즉 천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성윤길도 덕흥리고분의 경우 화염문으로 하늘 세계와 천장부를 구분하였고, 다른 고분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 천장에 연화문을 두었다는 점에서 연화문이 천계의 상징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도 47).<sup>39</sup>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괴수 문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발 상·하단 괴수의 차이는 이마 위에 난 서기瑞氣의 유무 그리고 몸에 표현된 서기의 방향이 다른 점이다. 서기는 짐승의 털인 우모羽毛<sup>40</sup>로 보기도 하지만, 필자는 한 대 화상석의 괴수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기운인 서기로 보고자 한다. 더욱이 금동신발의 서기는 한 대 화상석 괴수의 어깨와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삼각형 모양도 유사하며, 대체로 3개씩 인 한 대 화상석과 달리 하단부터 5+3+3+3+7 등 양의 기운인 홀수로 된 점도 비슷하다(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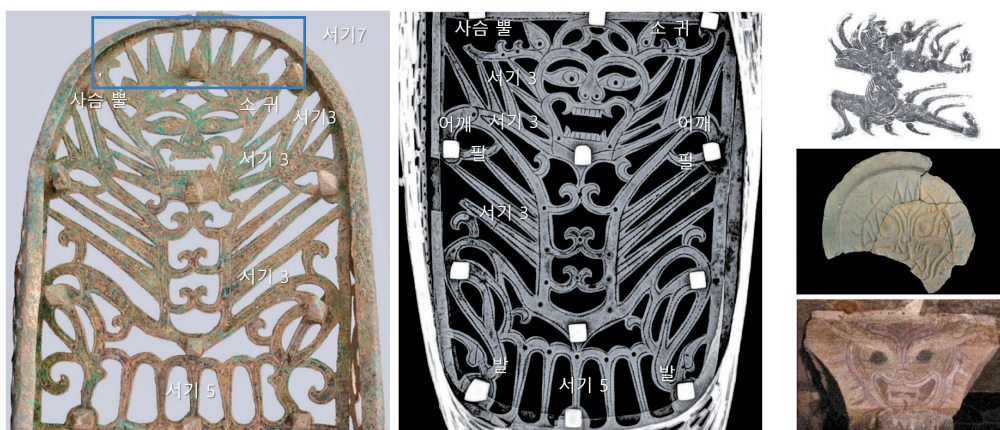
다음으로 괴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괴수문은 중국 은주시대 청동유물에 많이 보이는 도철문饕餮文에서 발전된 포수鋪首(도깨비 형상)로 보거나, 치우蚩尤(긴 뿔을 가지고 사납게 생긴 고대 중국의 전쟁 신)에서 일반화되었다고도 본다. 그리고 무섭고 사나운 얼굴 모습은 사악한 기운을 제압하는 벽사辟邪의 의미로 보고, 연화문蓮花文과 함께 배치되어 수호신 역할도 지니고 있다고 본다(도 49).<sup>41</sup>

39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102.

40 박경은, 「韓國 三國時代 古墳美術의 怪獸像 試論」, 『溫知論叢』5(1999), p.184.

41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21), p.140.





도 48. 정촌고분 금동신발 바닥(왼발), 괴수(기남한묘), 괴수(안악 3호분 기둥) 괴수(서울 풍납토성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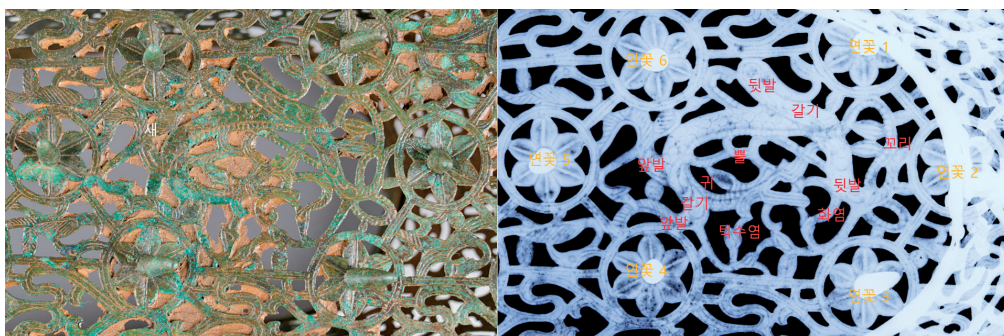


도 49. 포수(백제 금동대향로), 괴수문전돌(부여 외리), 치우(기남한묘), 치우(한대 화상석)

그런데 도철문이나 포수는 주로 몸이 표현되지 않고 얼굴만 강조된다. 치우의 특징은 전생의 신으로 무기를 들고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괴수의 얼굴 표현이다. 금동신발의 괴수는 사슴 뿔과 소 귀 등 용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용머리 장식에도 보인다. 백제 금동대향로의 포수 얼굴도 이마의 서기, 사슴 뿔, 돼지 코 등에서 용과 유사점을 보인다. 특히 신발의 괴수는 뒷발은 짐승의 발을 가지고 있어 백제 금동대향로의 포수와 유사하고, 앞발은 매의 발로 부여 외리 출토 전돌과 같다. 때문에 금동신발의 괴수는 용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 바닥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봉덕리 금동신발은 정촌 금동신발처럼 중앙의 연꽃 자리에 용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꽃은 정촌신발의 측면 기본 도형인 육각형으로 중앙과 상·하단에 배치되어 있다. 즉 용과 연꽃의 배치에서 유사성이 있다(도 50).

봉덕리 신발은 연꽃을 상하에 6개씩 배치하여 육각도형을 만들었다. 경주 식리총은 중



도 50. 봉덕리 금동신발 바닥 중앙의 용 장식(오른발 용)



도 51. 봉덕리 금동신발 바닥 장식(오른발, 왼발)과 경주 식리총 신발 바닥

양에 점렬의 육각 도형을 만들고, 좌우에 육각이 나누어진 오각형을 두었다. 이처럼 기본 도형은 정촌신발 측면의 기본 도형인 육각인 점이 같다.

봉덕리 금동신발과 식리총 금동신발에는 테두리에 구름무늬가 둘러져 있다. 상·하단에 쌍조를 중심으로 4마리의 갯이 있는 천상의 새가 날고 있도록 배치하였다. 식리총 금동신발의 상단은 중앙의 연꽃을 중심으로 주변에 5개의 연꽃을 오각형으로 배치하고, 하단은 중앙의 연꽃을 중심으로 주변에 4개의 연꽃을 사각형으로 배치하여 차이가 있다(도 51).

다음으로 괴수를 보면 봉덕리 금동신발 상단 괴수 머리 위에는 정촌 신발 앞축과 뒷축에 있는 구름무늬가 배치되어 차이가 있다. 괴수는 마치 포수처럼 얼굴만 표현되어 있는데, 소 귀와 사슴 뿔 그리고 돼지 코 등에서 정촌 금동신발의 괴수와 유사점이 많다.





도 52. 괴수와 역사상

반면에 하단에 있는 괴수는 양발을 벌리고 양어깨를 세우며 턱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도 52). 이러한 모습은 경주 식리총 금동신발과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에도 보인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괴수의 얼굴이 짐승이 아닌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손을 올려 위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입을 벌린 괴수와 달리 입도 다물고 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이미 창사 마왕퇴 승선도에 보이는 난쟁이 역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주를 받치는 난쟁이 역사상은 중국은 물론 인도에서 유행한 관념이다. 고구려 벽화고분인 삼실총에도 천장을 받치고 있는 역사상이 등장한다.

그러면 금동신발에 등장한 역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역사는 현실 세계에서 천계의 하늘을 받치는 역할을 하여 승선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성윤길은 역사상이 팔과 다리에 서기瑞氣의 표현과 함께 뱀이 다리를 휘감고 있어서 『산해경』에 나오는 남해 모래 섬의 신인 부정호여不廷胡余를 연상케 한다고 보고 있다<sup>42</sup>. 부정호여는 사람의 얼굴에 두 마리의 푸른 뱀을 귀에 걸고 두 마리의 붉은 뱀을 밟고 있다<sup>43</sup>.

김정숙은 삼실총 2현실 지천역사상 옆의 꼬여있는 뱀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땅속 보물을 수호하는 지모신地母神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천역사상 역시 지신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역사상 바지에 호랑이나 표범 가죽무늬와 유사한 문양이 반복되는 것

42 성윤길, 앞의 논문(2020), p.115.

43 『山海經』大荒南經. 南海渚中有神人面珥兩青蛇踐兩赤蛇曰不廷胡余.



은 수의피獸皮衣를 연상시켜 맹수의 털을 입음으로써 악귀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원시 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신의 성격과 신장상의 역할도 하였다고 추정하였다.<sup>44</sup>

서윤경도 북조시대 외수는 고분 및 석굴사의 천신天神과 역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신수 가운데 하나였고, 피장자를 수호하고 승선을 이끄는 천신의 역할을 담당하였다<sup>45</sup>고 이해하고 있다.

박경은은 뱀은 용과 같은 부류로서 본래 사방의 상제上帝와 교통할 수 있는 사자使者의 이동 수단을 의미하여 초지상적인 세계로의 비상飛上을 가능하게 하는 승물乘物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천제사자天帝使者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치우상이 뱀과 용을 움켜쥐고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sup>46</sup>

필자도 신발 바닥의 괴수와 역사상은 지상에서 하늘로 승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

### Ⅲ.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 원리

#### 1. 원류와 원형

고고학적으로 금동신발에 용무늬가 등장한 것은 5세기 전반으로 철쭉 무늬와 용이 결합한 원주 법천리 1호분 출토품이 있다. 공주 수촌리 3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바닥에 스파이크와 9개의 연꽃무늬와 용무늬가 보이는데<sup>47</sup>, 훼손이 심해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

이후 공주 수촌리 Ⅱ-1호묘 출토 금동모관과 서산 부장리 금동모관에 오룡이 등장한다(도 53). 수촌리 Ⅱ-1호묘 출토 금동모관에는 안쪽에 5마리의 용이 3단으로 배치되어 있고, 외곽에 구름무늬가 둘러져 있다. 전입식에는 2마리 용무늬·구름무늬·단사선문, 후입식에는 새가 꼬리를 펼친 모습으로 전입식과 유사한 무늬가 있다. 구름무늬와 오룡무늬의 결합은 정촌 금동신발 문양의 원형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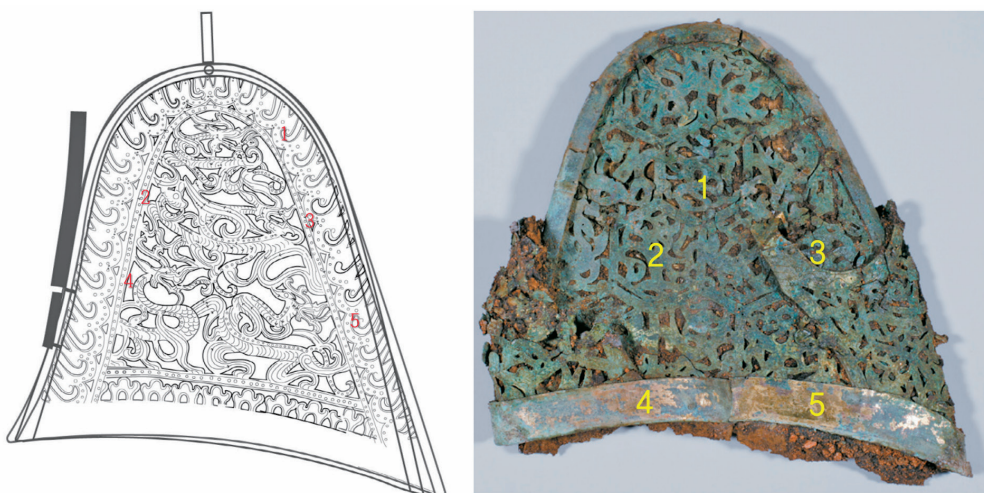
공주 수촌리 Ⅱ-4호묘 출토 금동모관에는 안쪽에 3마리의 용이 배치되어 있고, 외곽

44 김정숙, 「고구려 삼실총 '지천역사상'의 도상적 원류」, 『동서의 예술과 미학』(서울: 숲, 2007), pp.196 - 197.

45 서윤경, 「北朝 畏獸像의 연원문제와 상징성」, 『美術史論壇』 27 하반기(2008), p.88.

46 박경은, 앞의 논문(1999), p.208.

47 진소영, 앞의 논문(2009), p.6.



도 53. 공주 수촌리 II-1호 금동관 및 서산 부장리 금동관의 오룡(五龍)

에 구름무늬가 돌려져 있다. 전입식에는 2마리 용무늬·구름무늬·단사선문, 후입식에는 새가 꼬리를 펼친 모습으로 전입식과 유사한 무늬가 있다.<sup>48</sup>

한편 II-1호묘 출토 금동모관의 측판 하단에는 봉우리형의 문양이 있는데, 필자는 산수문전의 산악무늬와 유사한 산악무늬로 지상과 천상의 세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II-4호 출토 금동관의 측판 하단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S'자를 이루는 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구문경은 파상문으로 보았지만<sup>49</sup>, 필자는 용의 승천과 관련하여 구름무늬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산악무늬가 시기가 지나면 구름무늬와 새 무늬로 변해가며, 전륜의 쌍룡무늬가 용머리 장식으로, 후륜의 새 무늬가 매와 상상의 새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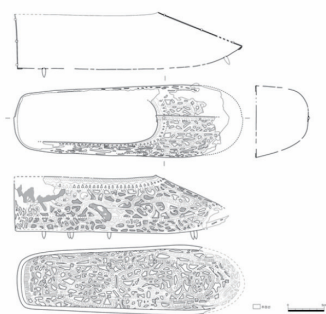
한편 수촌리 II-4호 출토 금동신발은 바닥 판의 내부에는 큰 용 5마리를, 주변에 4마리의 용을 투조로 표현하였다(도 54).<sup>50</sup>

이러한 오룡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 측면에도 등장한다. 앞쪽에는 날개가 달린 옹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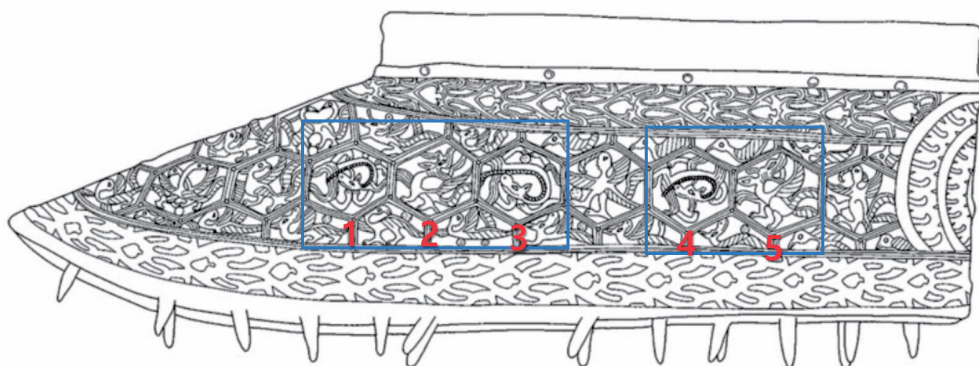
48 국립공주박물관, 『百濟의 冠 - 도판 · 해설』(2011), pp.28 - 45.

49 구문경, 「百濟 冠에 보이는 紋樣」, 『百濟의 冠 - 논고』(국립공주박물관, 2011), p.86.

50 이현상, 「한성시기 백제 금동식리의 제작기술과 그 특징 - 공주 수촌리고분군 출토품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9(2011).



도 54. 공주 수촌리 II -4호묘 금동신발 도면과 복원 신발



도 55.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 측면의 오룡

중심으로 2마리 용이 배치되고, 뒤에 용과 날개가 달린 응룡이 짝을 이루며 오룡이 된다(도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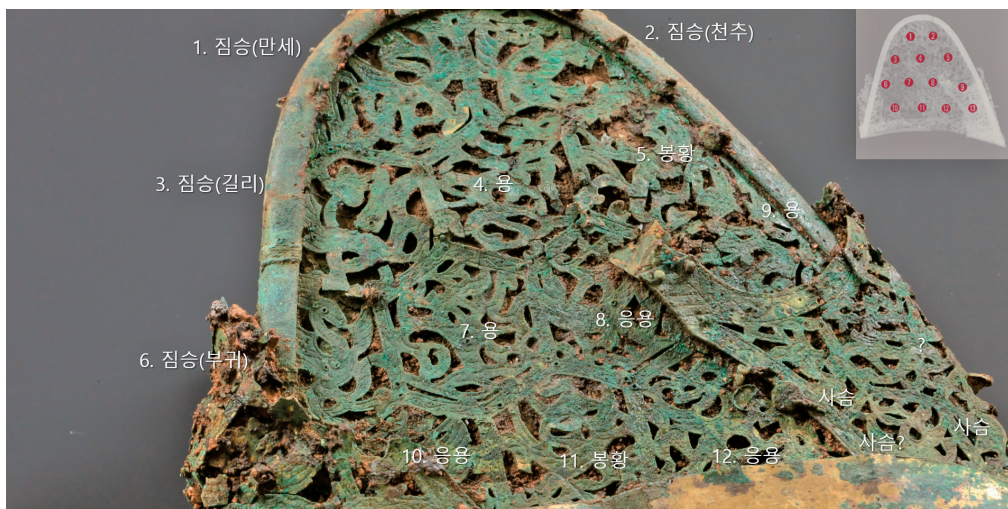
서산 부장리 분구묘 5호분 1호 토광묘 출토 금동모관에는 측판에 연속적으로 육각문을 배치하고, 그 안에 용문과 서조문을 넣었다(도 56). 전입식과 후입식에도 측판과 유사한 무늬가 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잘린 문양단을 제외한 측판의 문양을 용무늬가 3개, 새무늬가 10개로 모두 13개로 추정하였다. 새의 문양은 부리를 가진 것과 얼굴이 새가 아닌 동물의 형상을 한 것으로 구분하였다.<sup>51</sup> 측판 중앙에 있는 용무늬는 구문경 추정안처럼 오룡으로 생각된다.<sup>52</sup>

다만 좌측판 용무늬 외곽에 있는 서조문은 1단에 마주 보고 있는 것이 천추와 만세이며, 뒤쪽 만세 아래에 있는 2마리의 서조문은 길리와 부귀로 추정된다. 즉 측판 2단에는 길리,

51 국립공주박물관, 『百濟의 冠 - 도판 · 해설』(2011), pp.48 - 63.

52 구문경, 앞의 논문(2011), p.81.





도 56. 서산 부장리 금동관모 문양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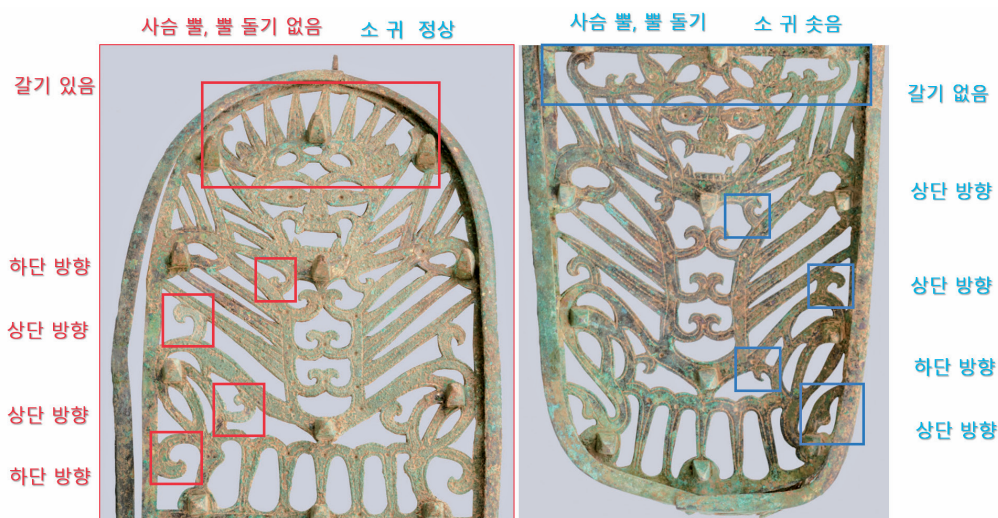
용, 봉황, 3단에는 부귀, 용, 응룡, 용, 4단에는 응룡, 봉황, 응룡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륜에는 사슴무늬가 있다. 우측편의 1단은 결실되어 있고, 2단에 용 두 마리, 3단에 응룡, 봉황, 응룡, 4단에 용, 봉황, 용이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서산 부장리 금동관모의 문양 구성은 정촌 금동신발의 문양 구성과 가장 유사점이 가장 많아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원형으로 추정된다.

## 2. 문양 전개 과정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문양은 승선을 위한 상징적 표현으로 문양 구성도 시간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이른 단계가 금동신발 바닥의 문양이다(도 57). 문양은 중앙의 연꽃무늬를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에 괴수를 배치한 구성이다. 괴수는 현실 세계에서 천계의 하늘인 연꽃을 받치는 역할을 하며, 승선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특히 괴수는 용의 얼굴로 봉덕리 금동신발의 중앙 용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봉덕리 금동신발의 경우, 역사상의 상하좌우 네 방향에 연꽃이 배치되어 있어 연화화생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여 외리 출토 전돌의 괴수 문양 역시 연꽃 위에 서 있어 주목된다. 즉 연꽃에서 화생한 용 모양의 괴수가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용을 타고 신선 세계에 들어가는 단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 57. 정촌고분 금동신발 바닥(오른발)

다음은 상·하단 괴수의 선후 관계이다. 괴수의 몸에 있는 새싹 모양의 서기는 이제 막 피어나는 구름인 운기(雲氣)의 형태로 신발의 측면 구름 모습과 비슷하다. 즉 서기의 유무와 방향의 차이는 중앙의 연화문을 중심으로 음과 양 등 도교적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하단이 음으로 서기의 방향이 아래쪽 뒤축에서부터 먼저 상단 방향으로 올라가며, 상단의 괴수는 양으로 대조적으로 아래쪽에서부터 먼저 하단 방향으로 올라가며 마지막 신발 앞축의 머리 위에 7개의 강한 기운을 나타내어 승천을 위한 운동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하단은 사슴의 뿔 모양의 뿔이 아래로 내려오고 귀를 쫓긋 세워 상단의 괴수의 말을 따르며, 상단은 양의 기운으로 귀 대신 뿔이 올라간 형태이다. 때문에 하단의 괴수에서 상단의 괴수로 승선 단계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측면 문양이다.

측면 문양 중 우선 관계에 중요한 첫 번째 요점은 새 무늬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새의 깃과 벼슬을 통해 지상의 새와 천상의 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오른발에는 주로 지상의 새가 배치되며, 왼발에는 천상의 새가 배치되어 있다. 때문에 문양 구성의 순서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더 들어가면, 오른발 우측판은 모두 지상의 새이지만, 오른발 좌측판은 앞쪽에 깃이 있는 우두머리 새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우측판에서 좌측판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신발의 상하 관계를 따져 보면, 아래쪽은 1~3마리로 규칙성이 없지만, 상단은 5마리씩 짝을 이루고 있어 하단의 새가 올라가 상단에서 5마리의 구성을 완성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오른발 우측판의 용은 오룡과 오룡이 결합한 형태로 양수陽數와 양수陽數가 만나 음수陰數가 되는 음양 관념이 지켜지고 있다. 용도 서로 마주 보며 호응하고 있어 음양의 조화가 느껴지며,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 규칙성이 있다.

다음으로 오른발 왼판 역시 오룡과 오룡이 결합한 형태로 음양 관념이 지켜지고 있지만, 용의 입 모양이 5마리는 벌리고, 5마리는 다물고 있어 변화가 있다. 또한 용의 머리 방향은 1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앞을 보고 있다. 때문에 서로 마주 보며 승천을 준비하는 우측판에서 시작하여 입을 벌리며 승천하는 좌측판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왼발에는 날개가 달린 응룡과 그 부하인 적리와 청규가 등장하여, 오른발의 용보다 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오른발에서 왼발로 격이 올라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왼발 우측판 용 중 응룡과 적리 그리고 청규가 뒤를 돌아보며 다른 용을 이끌고 있고, 용의 머리 방향도 규칙성이 없다. 반면에 왼발 좌측판의 용 가운데 응룡과 적리 그리고 청규가 앞을 보며 다른 용을 이끌고 있고, 입을 벌리거나 다물고 있으며, 머리 방향의 규칙성도 없다. 때문에 우측판에서 좌측판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길상무늬를 살펴보고자 한다.

길상무늬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지신은 오른발의 경우 서로 마주 보며 호응을 하고 있고, 왼발의 경우 모두 앞을 보고 전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용의 방향과 비슷하다.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왼발의 경우, 우측판의 지신이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좌측판의 지신이 더 나이가 들어 보여 우측판에서 좌측판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지신의 짝인 천왕이 등장하지 않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다음 단계인 천추와 만세는 오른발 우측판 하단에 등장하는데, 천추가 뒤에서 따라가고 만세가 앞서가며 뒤를 보며 호응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부귀와 길리는 오른발 우측판의 천추와 만세의 윗단에 등장하는데, 길리가 앞측 쪽에서 뒤를 보며 부귀를 이끌고, 부귀가 다시 고개를 돌려 뒤에 따라오는 상인 반대편의 사슴과 비어를 바라보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사슴과 비어를 보자. 먼저 비어는 오른발 좌측 하단에서 신발 앞측을 보며 전진하고 있다. 사슴은 오른발 우측판에는 없고, 좌측판에 벼슬 모양의 뿔을 가진 천록을 비롯한 5마리의 사슴이 등장한다. 왼발 우측판의 사슴은 뿔이 크게 자란 천록을 비롯하여 5마리의 사슴이 배치되어 있고, 왼발 좌측판에도 뿔이 조금 자란 천록을 비롯하여 5마리의 사슴이 표현되어 있다.

네 번째로 신발 앞측의 용무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용은 항수가 표현된 최종 단계의 용으로 측면과 바닥의 모든 사물을 이끌고 피장자를 하늘로 올라가는 매개체로 판단된다.



## IV. 맺음말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당시의 도교적 신선 사상을 여러 문양을 통해 구현한 집합체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양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금동관을 통해 표현된 도교적 문양을 변화 발전시킨 것으로, 5세기 후반에 절정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이러한 백제의 도교적 관념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사상적 동질성을 엿볼 수 있다.

이후 도교적 관념은 사비 시기에 이르면 더욱 발전하지만, 현실의 화려한 삶이 부정되는 불교적 관념이 일반화되면서 문양적 측면에서 보다 간략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교의 발전 속에 화려한 부장품이 사라지고, 거대한 무덤이 축소되는 사회적 현상도 관념을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사람이 죽어 신선이 되는 시해선尸解仙보다 산악에 깃든 신선인 지선地仙이 중요시되며, 길상 역할을 하는 신선의 격도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대상은 산수문경전이나 백제 대향로를 통해 표현되었다고 여겨진다.

\* 이 글이 작성되기까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이은석 소장님을 비롯하여 오현덕 학예연구실장님 그리고 탁견을 가지고 금동신발에 관해 연구의 초석을 놓아주신 성윤길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Subject Matter in the Designs on the Gilt-bronze Shoes Excavated from Jeongchon Tomb in Bogam-ri, Naju

Yoon Jonggyoon\*

Gilt-bronze crowns and shoes unearthed in tomb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have been highlighted by academics as the most prominent artifacts for reflecting the social standing of a buried person.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anings of the subject matter found in the designs on the Gilt-bronze Shoes Excavated from the Jeongchon Tomb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esigns on gilt-bronze crowns and shoes from regions controlled by the Baekje Kingdom and on mural paintings from Goguryeo tombs.

The designs on the Gilt-bronze Shoes from Jeongchon Tomb are symbolic expressions of the ascent to immortality and display its temporal progression. The earliest stage of this progression is represented by the designs on the soles of the gilt-bronze shoes. In the middle of the shoe's sole is a lotus flower with a monster depicted above and below it. These two monsters from the earthly world uphold the lotus flower, which represents the sky of the heavenly realm. This composition can be viewed as a preparatory stage for ascending to immortality. The depiction of a lotus flower and monsters is presumed to have symbolically articulated a preparatory stage in which a dragon-shaped monster metamorphosized into a lotus flower and entered into the realm of the immortals by undergoing a number of changes while riding on another

---

\* Chief Curator, Naju National Museum

dragon.

One of the designs on the uppers of the shoes is birds, which are considered to represent the first stage of the ascent to immortality. Birds can be either earthly creatures or heavenly versions according to their feathers and combs. The right shoe is decorated mostly with earthly birds, and the left shoe with heavenly versions. Thus, the designs evolve from the right shoe to the left.

Another design on the uppers of the shoes is dragons. On the right side of the right shoe are two groups of five interlocking dragons that face one another with their mouths closed to create a balance of yin and yang energy. The left side of the right shoe also shows two groups of five interlocking dragons, again striking a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However, a difference is apparent in their mouths: Five of them hold their mouths open, but the other five keep them closed. The left shoe is adorned with a winged dragon with its subordinate dragons, *jeongni* and *cheonggyu*, which indicates that this winged dragon is superior to the dragons depicted in the right shoe. The hierarchy in the composition moves up from the right shoe to the left.

The other design on the uppers is auspicious figures and animals, including the gods of the earth, who are regarded as supreme beings. The gods of the earth on the right shoe are facing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hile those on the left shoe are depicted looking ahead and proceeding as the dragons move forward. Such depictions signal the temporal progression from the right shoe to the left. The left shoe shows younger gods on its right side and older gods on the left, indicating a temporal movement from the right to the left. As for the auspicious animals, two human-headed birds, respectively examples of the creatures known as *cheonchu* and *manse*, emerge in the lower section of the right side of the right shoe. The *manse* is followed by the *cheonchu* while looking back at it and interacting. Above the *cheonchu* and *manse* are two animal-headed birds known as *bugwi* and *gilli*. The *gilli* is on the fore sole and looks back while leading the *bugwi*, and the *bugwi* turns its head to look at the deer and *bieo* (a fish with wings and legs) that follow behind on the left side of the right shoe. The winged and legged fish in the lower section of the left side is proceeding toward the fore sole. Five deer, including *cheollok* (a type of mythical deer with a horn shaped like a bird's comb), are depicted here. On each side of the left shoe are five deer as well.



The right side of the left shoe includes a *cheollok* with a large horn, while the left side shows a *cheollok* with a short horn.

Dragon-shaped projections are attached to the toe caps of the shoes. These projections have necks which are considered an indicator for the ascent to heaven and symbolize dragons in the final stage of ascending to immortality. They are thought to have served as a medium for the buried person to ascend to heaven while leading the creatures on the uppers and soles of the shoes. The Gilt-bronze Shoes Excavated from the Jeongchon Tomb in Naju contain an assembly of designs materializing the Taoist thinking on immortals that were current at the time. Such designs are transformed and upgraded versions of the Taoist designs found on gilt-bronze crowns from the late fourth and early fifth centuries. They appear to have been applied most frequently in the late fifth century. The designs on the Gilt-bronze Shoes from Jeongchon Tomb that reflect Taoist concepts share affinities with mural paintings from Goguryeo tombs, attesting to ideological similarities between the Baekje and Goguryeo Kingdoms.

Taoist concepts developed further during the Sabi period. However, with the spread of Buddhist ideology that renounced glamor during physical life, Taoist designs are presumed to have been simplified. Moreover,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s believed to have resulted in the disappearance of resplendent tomb furnishings and the down-scaling of previously gigantic tombs.

## Keyword

the Gilt-bronze Shoes, Naju Bogam-ri, Jeongchon Tomb